



밀알선교단 '사랑의캠프' 폐막 = 미주밀알선교단 서부지단들이 연합 주최한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제15회 사랑의캠프'가 지난 27일부터 2박 3일간 UC 산타바버라 캠퍼스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참가자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관계기사 10면>

탈기독교화된 유럽, 이제는 종교자유도 억압?

'동성애=죄'란 표현도 불법 신앙 표현의 권리 박탈 사례 증가

유럽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선교계에서는 유럽이 복음이 한번도 닿지 못한 오지와 마찬가지로 '최전방 선교지'라는 인식이 더 이상 낮은 것이 아니게 됐다.

그러나 세계 기독교 역사에 큰 공헌을 했던 유럽의 추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과거 이란이나 파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들에서나 일어났을 법한 일들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신앙의 표현이 법에 의해 억압된 여러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유럽에서 들려와 우리의 귀를 의심케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 교계 전문지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 4일(현지 시각) 영국 토니 미아노 목사가 길거리에서 "동성애=죄"라고 설교했다가 체포당한 사건을 보도했다. 그는 1시간여의 조사 끝에 "다시 한번 이런 행동을 하면 정식으로 기소 당할 것"이란 경고와 함께 풀려날 수가 있었다. 그를 고소한 행인

은 미아노 목사가 "동성애 혐오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미아노 목사는 단지 "동성애를 포함한 여러 성적 부도덕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전했을 뿐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영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데 놀라움을 표시하겠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미국의 기독교 법률 자문단체인 자유수호연합(ADF)은 8일(현지 시각)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 유럽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같이 신앙의 표현이 제한당하는 데는 물리적인 박해가 존재해서라기보다는 신앙을 '사유화'해야 한다는 세속주의적 사회의 분위기가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즉,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신앙을 선택할 수 있고,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 신앙을 다른 이들 앞에서 표현하거나, 받아들이도록 권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 금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압박에 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ADF는 이미 유럽에 공공장소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행동에 대한 법적 제재가 존재하며, 이는 형법 차원에서 엄격히 다스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ADF가 예로 든 여러 사례들 중 하나는 스웨덴에서 한 목회자가 성적 타락에 대해 설교했다 그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1월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또 다른 예로 아일랜드에서는 한 목회자가 "세속주의 문화에 의해 교회가 공격 당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징역 2년에 처해질 뻔 하기도 했다.

이들 사건들로 인해 신앙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일었지만, 유럽 국가들의 대다수에서 이러한 표현들의 '검열' 행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ADF는 전했다.

한편, 유럽의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 비단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ADF는 유럽을 주시하고 있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각자가 속한 사회에서 신앙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이에 지혜롭게 맞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손현정 기자

INTERVIEW

"주고 주고 또 줘서, 탈북자들을 죽이고 있다"

[인터뷰] 서울USA선교회 에릭 폴리 목사

서울유에스에이선교회(서울USA선교회, 이하 서울USA) 공동회장 에릭 폴리(Eric Foley) 목사(사진)는 탈북민 사역의 핵심으로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이들이 또 다른 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꼽았다.

폴리 목사는 북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 미국 기독교 사역의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약 1,300개 정도의 단체를 상대로 컨설팅했다. 1997년에는 대형 집회인 'Promise Keepers'를 개최하고, 이후 대규모 전도 행사인 'Adapt a block' 행사를 기획하는 등 열정적인 사역을 하다가 한국인 아내인 현숙 폴리 회장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을 통해 북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 그는 "그 전에 도, 그 후에도 이러한 영적인 꿈은 꿈 적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인생을 헌신해서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섬길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진땀을 흘리면서 깨어났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 3면으로 이어짐

성시화운동 신임이사장 최대영 장로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박희민 목사)가 신·구 이사장 이취임식과 2기 이사회 정기총회를 2일 오후 미주평안교회(송정명 목사)에서 열었다. 취임 인사말을 전한 신임 이사장 최



대영 장로(사진)는 "지난해 유럽 성시화대회에 참석해 6개국을 다녔는데, 교회 출석 인구가 전체

적으로 2%, 영국이 6%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미국 또한 교회 출석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번에 취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갈 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감동

을 받았다.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겠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임 인사말을 전한 이사장 최문환 장로는 "한번도 빠짐없이 매주 수요

일 아침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홀립클럽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한량없는 은혜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 10면으로 이어짐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ASE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교역자 10%할인해 드립니다.

성교비전의 꿈을 이곳에서!

■ 미주성결대학교의 특징
 - 캘리포니아 주정부 BPPE 인가 및 ABHE 회원 (Candidate Institution)
 - 졸업 후 목회자, 선교사, 전문상담사 등으로 사역
 - 한국과 미국 어디서든 가능한 온라인 강의
 - 국내외 우수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뛰어난 교수진

■ 특 전
 - SEVIS I-20 Form 자체발행
 - 성적과 자격에 따른 다양한 장학금 (11종류)

■ 학위과정
 - 학부: 신학사 (B.Th.)
 - 대학원: 목회학 석사(M.Div.), 상담학 석사(M.C.C.), 선교학 석사(M.M)

■ 입학지원 절차
 1. 기본자격: 세례를 받은 자로서 중생의 체험과 소명감이 확고한 자
 2. 입학서류: 본교 소정 양식(홈페이지 다운로드)
 3. 전형방법: 1) 서류심사 2) 면접 (장학생 선발)
 4. 신청마감: 가을학기 (8월 20일), 봄학기 (1월 20)
 5. 입학상담: 연중 수시

www.aeui.us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오바마 “아프리카에도 동성애를” 현지 종교인들 “절대 반대”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 탄자니아에서 어린이와 인사하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 순방 중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아프리카 국가들에 요청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동시에 급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

문이 환영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동성애 문제 때문”이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순방 중 세네갈에

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성에 관계없이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발언에 대해 아프리카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이것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반기는 아프리카의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었다고 보고 있다. 세네갈 루터교회의 지도자인 피에르 아다마 피에 목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동성애 문제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를 아프리카 자치 간섭 문제까지 보고 있다. 현지 무슬림 지도자인 세이크 살리우 음바크 씨는 “동성애 문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는 공갈 편지나 강요의 도구가 되어서 안된다”며 “우리 사회에 동성결혼을 허용하게 하려는 어떤 국제 사회의 위협에 저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제 엠네스티 등도 아프리카의 동성애자 처벌에 관해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이로비의 가톨릭 지도자인 존 응주에 추기경은 “아프리카는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전통과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는 아프리카의 37개 국에서 범죄로 취급된다. 그러나 동성애가 합법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톨릭 지도자 빅터 응로부 신부는 “서방에서 인권의 문제로 부각되는 동성애에 관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매우 근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동성애가 삶의 한 형태로 인정받을 경우,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지도자들의 반응도 종교계와 유사하다. 세네갈의 매기 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를 “우리는 자유를 존중하지만 동성애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케냐의 윌리엄 루토 부통령은 “미국이 케냐의 발전을 위해 힘써 준 것에 매우 감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반박했다.

김영신 기자

영국서 “동성결혼은 죄” 길거리 설교한 목사 체포돼

최근 영국에서 한 목사가 길거리에서 성적 타락 문제를 언급하며 동성애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미국인인 토니 미아노 목사는 런던 길거리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감옥에 7시간 동안 구금됐다. 전직 경찰인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근거해 성적 부도덕 문제를 설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들은 행인이 경찰에 “동성애 혐오적 말을 들었다”며 그를 신고한 것이다.

그는 체포 및 구금된 이후, 벌금이나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의 나라인 영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 개탄했다. 세계 민주주의의 시작으로 꼽히는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은커녕, 말 한 마디로 인해 체포될 수 있는 곳이 영국이 됐다는 뜻이다.

미아노 목사는 “나는 동성애에 혐오적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난 동성애를 증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성적 부도덕 문제를 이야기했고,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했을 뿐이다. 그 성적 부도덕 안에는 물론 동성애가 포함돼 있었지

만, 다른 타락의 문제도 있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치고 믿은 바”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나의 기독교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조사를 받은 사실에 매우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경찰로부터 “또 다시 이런 행동을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경찰은 “정식 기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1시간 뒤

경찰은 그를 놓아 주었다.

조사 당시 미아노 목사와 함께한 영국기독교법률센터의 변호사는 “영국이 동성결혼법 통과를 앞두고 경계의 액션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최근 동성결혼법이 하원에서 366대 161, 상원에서 390대 148로 통과됐으며, 여왕의 서명을 남겨 놓고 있다. 이 법은 자유민주당과 노동당, 그리고 보수당 소속의 데이빗 캐머론 총리가 적극 지지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토니 미아노 목사가 길거리에서 성적 타락 문제를 언급하며 동성애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아시아나 사고 中 희생자들, 교회 여름캠프 참석차 방미 초청 교회 담임목사 “얼굴도 못보고...깊은 애도”

초청 교회 담임목사 “얼굴도 못보고...깊은 애도”



왕린지아와 예명위엔양이 단론 블로그 웨이보의 계정에 올린 사진. 왼쪽이 왕양, 오른쪽이 예양의 계정 사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로 목숨을 잃은 중국인 여학생 2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웨스트밸리 크리스천 처치’가 주최하는 3주 일정의 여름 캠프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사고 소식을 접한 교회는 이날 주일예배에서 왕린지아와 예명위엔 등 희생자를 추모한 데 이어 오는 11일에 별도의 대규모 추모예배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교회 관계자들은 생존 학생들을 위한 모금행사도 시작했다.

글렌 커비 목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게 많다”면서 “우리는 중국인 학생들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는지 몰

랐고, 35명의 학생들 가운데 2명이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숨진 2명 학생의 부모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들을 만난 적도 없지만 그들과 슬픔을 나

눈다”고 기도했다. 특히 매년 여름캠프를 열어온 이 교회는 올해 처음으로 중국인 학생들을 초청했다 이같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여름캠프는 주중에는 매일 영어와 미국 문화를 공부하는 동시에 지역 대학과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을 소화하고 주말에는 교외로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학생들도 이달 말에 시작되는 2차 여름캠프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교회 관계자는 전했다.

정현욱 기자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었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제5기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수강생 모집

제4기 의료선교사 수강교육을 무사히 마치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기치료 의료선교사님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전념하고 계시며 의료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교육과정은 단기간의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의학분야의 중요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완벽한 치료술을 습득합니다. 수기치료는 약품이나 기구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손만을 사용하여 온갖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술입니다. 주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실 의료선교사 제5기 수강신청을 아래와같이 실시합니다.

모집 안내

- 신청 자격 :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으로 선교에 뜻이 계신 남녀분
- 모집 대상
 1. 목회자 또는 선교사님 (해외 파송 선교사)
 2. 선교 사역을 원하시는 평신도,
 3. 단기 선교, 또는 의료선교 사역을 원하시는 교회 선교팀
 4. 의료봉사 사역을 하고자 하시는분
- 모집 인원 : LA 지역 남녀 10명(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제한 합니다)
Orange County 지역 남녀 10명
- 교육 기간 : 총 20주 (매주 2회, 매회 2시간 교육)
- 접수 마감 : 2013년 7월 14일
- 개강 일자 : 2013년 7월 16일 (화요일)
- 교육 장소 : LA 지역 2836 W 8th #106 Los Angeles (금란 노인 상호회 건물)
Orange County 8201 2 Garden Grove (기독 강의실)
- 접수처 : 세계의료선교사 육성 재단 213) 381-7273, 213) 605-2928
Email charliespark@hanmail.net

교육 내용 (한의학, 카이로 프랙틱, 근육치료술)

1. 근육 치료학 : 각종통증 치료술 (근육 전문 치료술)
2. 체형 교정학 : 변형된 체형을 바로 잡는 교정술
3. 척추 교정학 : 변형된 척추를 교정하여 신경의 흐름을 도와줌
4. 영양 물리학 : 자연식 요법 (성인병 예방 및 치료)

교육의 특징

본 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수기치료는 의과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오랜 기간 임상을 통하여 확고하게 연구 개발된 치료법으로 단기간에 완벽한 치료술을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약품이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료후 특전

1. 수료증 및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자격증 수여.
2. 해외 파송 선교사님은 후원 하어드립니다.
3. 부부기 수강신청시 한분은 청강생으로 수강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선교 법인 세계 의료선교사 육성 재단 2836 8th St. Los Angeles, CA 90005 문의전화 : 213)381-7273 / 213)605-2928 / 714)853-4527

서울USA선교회 에릭 폴리 목사 인터뷰

<1면으로부터 받음>

폴리牧사는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고, 몇 년이 되지 않아 이는 현실로 나타났다. 우리 가정은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북한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폴리牧사는 한국교회가 북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신실함을 보고 ‘믿음의 형님’으로 모셔야 한다고 했다. 현재 서양과 한국교회는 ‘풍요의 유혹’에 빠져 있다고 했다. 풍요로움이 영적 빈곤에 장어가 된다는 것이다. 북한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지하교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믿음 지켜가는 삶”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탈북자 선교 문제는 ‘무관심’과 ‘퍼주기’

폴리牧사는 오늘날 탈북자 선교의 문제는 교회에서 그들에게 관심이 아예 없거나, 관심을 갖되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남한에서는 탈북자들에게 음식과 훈련을 제공한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돈을 주고 오라고 한다. 훈련 프로그램도 돈을 주고 오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행복을 주는가?”라고 되물었다.

폴리牧사에 따르면, 현재 탈북자들의 자살률은 16% 이상이다. 이는 세계에서조차 아주 높은 편에 속하고, 우리나라보다 3배에 해당한다. 폴리牧사는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자살하는 것은 굶주림 때문이나 집이 없어서가 아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원하지 않고, 자신들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깨울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를 깨워야 한다. 계속 주고, 주고, 또 줘서 북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깨우침을 주어야 한다. ‘친절함으로 죽인다(Killing with kindness)’라는 말과 같다. 그는 이어 “지금은 위기 상태다.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탈북민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들과 함께 주고받는 이웃이 되라고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는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폴리牧사는 “탈북자들에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사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들로부터 탈북자 선교에 대한 전략과 지혜를 얻는 것이다. “북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을 갖고 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들을 앞에 세워주는 것이다. (북한에서) 날고 자라고 한 것이 큰 자원인데, 북한 선교를 하면서도 탈북자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



에릭 폴리 목사

는다. 늘 자신의 사역 밑에 두려고 한다. 동역자로서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 폴리牧사는 서울USA 사역의 특징을 소개했다. “우리는 탈북자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역에 동참하게 한다. 예를 들어 지체부자유자들이 기거하는 곳에 가서 섬기도록 한다. 한 달에 한 번은 이들이 자기의 것을 모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모의 실천을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폴리牧사는 “우리는 탈북자들이

북한 사역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 대부분은, 좋은 열정과 선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전략이 부족하다. 우리는 100개 이상의 북한 사역 프로젝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있다. 북한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이다. 제일 효과적인 선교 사역은 탈북자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가족들에게 전도하게끔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탈북민들을 훈련시켜 당사 양육과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牧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재통일을 믿는다. 국가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루는 것도 아닌, 영적인 통일이 재통일이다. 재통일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2만5천명의 탈북자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슨 신호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오래 전에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보실 것이다. 그 열매를 보고, ‘잘 하였고도 충성된 종’ 말씀하실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변화되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USA는 국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유유선교학교(Underground University), 유티여성학교

(Underground Technology)를 운영 중이다.

유유선교학교는 탈북자들에게 전 세계 선교 지도자들의 강의와 개인적 관계성을 세우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한 탈북민으로 담당 목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 교육 과목은 제자 양육 및 교회 개척, 갈등 해결, 기독교 박해사, 선교사역계획서 작성법, 사랑의 실천사역, 프리퀵(지도자 훈련) 등이다. 유티여성학교는 국내외 기독교 지도자들의 강의를 통해 탈북여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여성지도자로 세우는 영성훈련학교로, 지원자격은 유유선교학교와 동일하다. 프라소(말씀치유), 집단상담, 봉사, 현장실습 등을 진행한다.

■ 에릭 폴리 목사= 아내와 함께 서울USA 공동 설립자이자 CEO로서 콜로라도 스프링스와 한국의 DOTW(Doers of The Word, 말씀을 행하는 자들)를 섬기고 있으며, 한국에서 북미 복음교회교단(The Evangelical Church Of North America)을 시작한 안수목사다. 지난 20년 동안 제자훈련에 입각한 자원봉사와 후원과 관련해, 1,300개 이상의 교회와 비영리 기독교 단체를 훈련해 왔다. 현재 미국 등 서양 국가들을 비롯한 국제적 컨퍼런스에서 북한과 북한 지하교인들에 대한 강의를 하고, 이를 통해 서양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도전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무슬림형제단,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에 “투표하면 죽이겠다” 협박

이집트 출신 美 목회자, 현지 소식통 말 인용해 증언 무르시 축출 “세속주의 vs 이슬람주의 대립의 연장선”

무함마드 무르시(62) 이집트 대통령이 군부에 의해 축출된 뒤 극도의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는 가운데, 1년 전 선거 당시 콥트 기독교인 대부분이 무슬림형제단의 협박으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집트 출신 유세프 마이클(Michael Youssef) 목사는 8일 미 교계 언론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유세프 목사는 “무르시 대통령 축출 사건은 북부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에겐 오히려 절망의 일”이라면서 “당초 대통령 선거 시 무슬림형제단의 협박으로 인해 콥트 기독교인 대다수가 선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무슬림형제단은 이들에게 투표하면 총으로 쏘 죽이겠다고 협박해 방해공작을 펼쳤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애틀랜타에서 성도수 3천여명 규모의 사도교회(Church of the Apostles)를 개척 시무하고 있다. 유세프 목사는 이집트 현지인들의 말을 인용, 무르시 전 대통령은 내각

고위 관료에서부터 하위 관료에 이르기까지 점차 이슬람주의자들로 교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실행에 옮기며, 실제로 재임기간 중 관료들 가운데 이슬람주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제거하고 이들을 대신해 무슬림형제단원들을 지명해 앉혔다고 덧붙였다.

이집트에서는 2년 전 호스니 무바라크를 몰아낸 ‘아랍의 봄’ 이후 민선에 의해 당선된 무르시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격 축출됨에 따라, 무르시의 지지 기반이자 이슬람의 주요 세력인 무슬림형제단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무슬림형제단은 1928년 이슬람 학자인 하산 알반나가 일종의 이슬람 부흥운동 조직으로 이집트에서 창설했다. 이후 알제리, 요르단, 수단 등으로 세력을 넓혀 현재는 리비아, 튀니지 등에도 조직을 두는 등 아랍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 중의 하나로 성장했다. 단체의 목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지배하는 국가 설립을 표방하고 있다.

무슬림형제단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대통령의 지위에 오른 무르시는 그간 무슬림형제단과 패착해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슬람 정권 수립에 대한 야욕을 키워 나가고 있었다. 무슬림형제단 지도자들은 공적 행사에서 종종 국정 관련 주요 정책을 발표하거나 연설을 함으로, 무슬림형제단의 지도부가 실제 국정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샤리아를 명시한 새 헌법 초안을 통과시켜 콥트 기독교인 등 소수 종교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헌대판 파라오 헌법’이라 불리는 이 선언문에는 ‘이슬람은 국교’, ‘아랍어는 공식 언어’라고 규정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종교문화연구소 소장 전호진 박사는 앞서 “이집트 사태를 비롯한 아랍 문제에 대해 자칫 정치, 경제적 혼란으로만 치부하기 쉽다. 하지만 종교, 문화적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아랍 스프링 : 봄인가 겨울인가>를 펴낸 전 박사는 세미나에서 “아랍 세계는 아직까지 종교가 우선이다. 모든 것에 이슬람교라는 종교적 잣대를 들이댄다”며 “아랍의 봄 이후 아랍

의 정체성이 무슬림 정체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랍의 봄은 종교적 관점에서 관찰, 해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 박사는 아랍의 봄 이후 아랍국가에 나타난 주요 현상으로 세속화 경향과 이슬람교의 분열을 꼽았다.

한편, 조순대 송경근 교수 역시 무르시 축출 사태에 대해, 세속주의-이슬람주의 세력간 대립의 연장선으로

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최근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집트에서는 지난 세기 이래로 세속주의 진영과 이슬람주의 세력간 대립이 계속돼 왔다”면서 “아랍의 봄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세속주의의 두 축인 군부·자유주의자들과 무슬림형제단의 끊임없는 견제와 경쟁이라는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한나 기자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세탁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ilshire Blvd.,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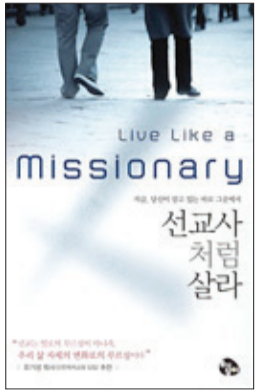
약도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선교사처럼 살라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거대한 비눗방울' 에서 빠져 나와... '선교적 그리스도인' 이 되자



선교사처럼 살라
제프 아이오그 | 손정훈 역 | 토기장이

토기장이의 책 <선교사처럼 살라 (Live Like a Missionary)>의 앞에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라는 전제가 붙어있다.

저자인 제프 아이오그(Jeff Iorg)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도전한다. 그리스도인들과만 교제를 나누는 삶은 마치 거대한 비눗방울 속에 사는 것과 같으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

하기 원한다면 그 비눗방울에서 과감히 벗어나라는 것. <위대함을 선택하라>가 선교의 '장소'에 방점을 두다면, <선교사처럼 살라>는 '사람'에 강조점을 찍고 있다.

저자는 전통적 의미의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의 중요한 습관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선교사가 되다'는 말이 너무 좁은 의미로 정의되어 있으며, 국경을 넘어가거나 전세계를 다니지 않고서도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한다며 그 사람을 '선교적 그리스도인'이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수단 난민들을 돕도록 부름받았다면, 그들을 찾아 지구 반대편까지 가기 전에 당신 주변에 이미 이주해 있는 수단 사람들을 왜 먼저 돕지 않았는가? 먼저 당신 주변에 있는 해당 국가 사람들을 찾아나선 뒤 그들을 섬기라."

'선교 중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사례로는 '바울'을 꼽고 있다. 바울은 복음 전도의 책임에 대해 말할 때 자신의 폭넓은 여행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 목적을 묘사하는 데 우선순위를 줬다는 것. 저자는 '회심'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바뀐순간 수만 가지 변화 중 단 한 가지에 불과하며, 선교적 삶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된다고 말한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교적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사람과 관련된 것이라는 확신에 기초해 '선교사처럼' 기도하고, 복음을 연구하며, 성령을 체험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변화하고 헌신하며, 불가능에 도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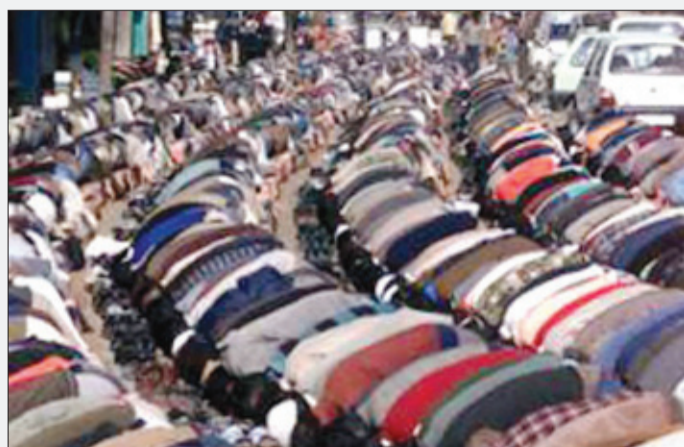
선교사처럼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 행하는 것보다 앞서야 한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식의 기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추수에 참여하도록, 복음을 전할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담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대웅 기자

라마단 기간 시작 이슬람 선교의 위기이자 기회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 높아지지만, 진리에 대한 고민도 깊어져



라마단 기간 인도 카슈미르 지역의 스리나거 거리에서 정오 기도를 드리고 있는 무슬림들.

9일부터 이슬람 라마단이 시작됐다. 라마단은 아랍어(齋)로 '더운 달'을 뜻한다. 이슬람은 이를 천사 가브리엘(Gabriel)이 무함마드에게 '코란'을 가르친 신성한 달로 여겨, 이 기간 일출에서 일몰까지 의무적으로 금식하고, 날마다 5번의 기도를 드린다. 이는 유대교의 대속죄일을 본따 제정한 것이며 이슬람 신자에게 부여된 5가지 의무 중 하나다.

이 기간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 뿐만 아니라 물, 담배, 성관계도 금지되지만, 해가 지는 순간부터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으며 축제를 즐긴다.

라마단은 기독교인들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도 된다. 이 기간에는 대부분 이슬람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높아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도 덩달아 깊어지는 위험한 시기라고 봐야 한다. 작년의 라마단 기간의 경우를 봐도 연중 다른 기간에 비해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표출된 사건들이 월등히 많이 발생했다.

라마단 기간 동안 과거 이슬람을 믿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 이슬람 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압력을 심하게 받는다. 이들은 특히 가족들로부터

가장 큰 압력을 받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도 받는다. 때문에 많은 이들은 가족과 마을을 등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마단 기간 동안 개종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무슬림들이 이 기간을 통해 신앙의 자세를 다잡으며 더 나아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현재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자스민 혁명이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를 지나 중동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이슬람 정부가 들어섰으나,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됐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더욱 이들을 기도가 필요하다.

한편 초교파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은 라마단 기간(7월 9일부터 8월 7일까지)에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기도 운동은 1992년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중동에 모여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작됐다.

강혜진 기자

한 메시지가 지금은 온라인 미디어라는 더 큰 장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여러 언어로의 온라인

복음전도를 위한 노력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사이버 공간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순헌정 기자

빌리 그레함, 인터넷 통해 8만 명에 복음 전해

히스패닉 위한 사이트에서 전도사역 활발

20세기 최고의 복음전도자로 손꼽히는 빌리 그레함 목사의 사역은 21세기에도 그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전도집회가 복음이 전파되는 현상이었다면, 이제는 사이버 공간이 그 현상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빌리그레함복음전도협회(BGEA)는 히스패닉을 위해 만든 스페인어 사이트 PazConDios.net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7만8천여 명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고 밝혔다.

협회의 인터넷 복음전도 디렉터 존 카스에 따르면, 기존 교인들보다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초점을



빌리 그레함 목사

맞춘 이 사이트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창안해 협회가 수년간 사용해 온 '평화를 향한 4단계(Four Steps to Obtain Peace)' 프로그램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요한복음 3:16절을 기반으로, 방문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한다.

또한 사이트는 복음을 접한 방문자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에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봉사자들을 두어 새로운 신자들과의 채팅을 통한 멘토링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무엇보다 중요한 보다 많은 방문자들을 사이트로 초대하는 데는 구글 광고가 활용되어 눈길을 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거나 인생의 해답을 찾는 이들이 구글 창에 '하나님은 존재하는가'라든지, '희망은 있는가' 등의 질문을 입력하면, 구글 광고를 통해 바로 사이트가 노출되고 있다.

존 카스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수십년간 전해 온 하나님의 사랑에 대

초스피드 다이어트 **미용침** · 열공촉수 (안면지방제거)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매에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위 하트오리)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장재효 목사의 반세기목회와 선교확장 보고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롬 14:8)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은 자

크리스천이라면 나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의 고난과 대속의 죽임당하심에 대한 마음에 감동적인 부담감을 느끼며 살게 마련입니다. 특히 사명지로 택하시고,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심을 받는 목회자(선교사)라면 영적가치관이 예수님과 일치해야하고 구령성과를 위한 사명의지가 투철하여 금식기도하며 살리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의 사명의지로 복음의 재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확장을 위해 애간장 태우며 노심초사 하시는 참된목자, 선한 사역자라면, 요즘같이 교계가 교리적으로나 특히 영적으로 혼란하여 교회가 침체한채 목회자들마저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 설교와 목회로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하나님 절대주권적 권위와 존엄을 훼손내지 능력하는 것같이 교회마저 세속화 추세로 변질해가는 차제에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에 의한 영감적 체질신앙은 지금도 진리정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몸인교회로 계속 부흥하며 영적으로 성숙되어 인류 복음화를 위한 시대적 사명, 구령성과를 위해 더욱, 오진하고 힘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실증적 목회사역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 내신 생생한 체험, 그 중 일부의 내용이 본 책에 담겨있습니다.

진실로 바른 목회를 열망하며 책임목회의 사명의지로 더 많은 구령성과를 위해 받은 바 주님의 은혜보답과 맡기신 사역의 영적성과를 위해 진총간력하시는 목회자라면 이 책을 탐독함으로써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시대에 요긴하고 더욱 힘있게 쓰임받을 유능한 사역자가 되게 하실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추천합니다."

이 책을 구입 탐독하실 때 영적신앙과 사역에 성령님께서 인도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 책값으로 지불하신 10불은 한,미간 탁송운임과 구독자에게 배송 우편비로 사용될 뿐, 책값은 무료로 국제성은복음선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입문의 : 213.739.0403

성도의 생활원리

요한1서 1:1-8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성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계시와 감동으로 자기의 영적인 상태와 지육형벌의 심판, 예수 그리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어지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죄와 지육 형벌의 저주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 성도는 믿음으로 하늘소망을 목적으로 새출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받아 주시는 표시로 그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영어로 크리스천(Christian)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가 로마에서 쫓겨와 고린도에서 사업을 시작 했지만, 그들의 기술이나 노력만으로 그렇게 빨리 사업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업으로 열심을 냈고 결국 그 사업장은 하나님께 경영을 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업을 크게 일으켜 주심으로 그 두 내외는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사도바울의 유럽과 아시아 선교 뒷바라지를 하기에 붙들어 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가상적인 생각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쓰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살리시며, 붙들어 쓰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 원리입니다.

돈을 벌어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을 저질러 가면서 수입만 목적으로 사는 것은 저주를 재촉하는 것이며, 심판과 형벌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혼신의 진액을 다해서 신령한 성과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나와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조건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각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은 자청하여 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목사가 우리의 형편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잘 아시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한다며 불평 속에 있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 기준이고 자기 입장 중심입니다. 아불로라는 대학자도 아무리 세상 공부를 많이 했어도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중심이며, 이기적이고 자기를 나타내므로 자기가 대접받고 영광 받고 감사로 쟁기는 목적으로 살아오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를 통하여 허룰만에 진리를 깨달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자기중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 인생으로 바뀌고 쟁기기를 목적으로 살았던 인생이 드

리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하고 선교사로 가서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불로는 자기의 지식을 팔아먹는 장사꾼으로 얻어지는 수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재산을 의지하고 산 인생도 아니고, 자기 인생을 영육간에 회개하고 성령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밖에 없는 생활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29-30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먹여 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원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리어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 상속받을 자격이 된 사람입니다.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파괴시켜 기준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성을 잃고 미쳐버린 것입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한다 보면 인격적으로는 귀신에게 휘둘리며 사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진리도, 구원도 모르고 하늘나라도 모으며 분별의 혼돈이 생겨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살게됩니다. 절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본문 1절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헬리어로는 호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인격적인 말씀을 뜻합니다. 그 말씀은 선포되는 즉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인격적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로는 선포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니라"(요한 1서1:2)

요한복음 14:6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요14:8)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요 14:9-10)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 아들 성령은 달라도 몸은 한 분,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무엇 하시는 분인가를 아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증거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63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 본체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과 사귀를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죽은 심령에도 전달되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귀는 사람들끼리 사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더불어 사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구원 얻는 성도라고 하면서 빛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어둠을 배경으로 산다면 그 인생은 거짓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지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한1서 6-7)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온 세상에 비추면서 어둠을 물리치는 일

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을 일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배경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 구원 얻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음만 잘 믿는 척하고 생활하는 행동은 완전히 어둠의 자식처럼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귀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거짓말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믿음직스러우신 분이기에 때문에 그 아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붙어사는 것이 성도의 생활원리입니다. 말씀이 내게 아무리 힘들고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계속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힘든 부탁이라도 달게 받아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에 따른 기대만큼 관심도 더 깊어지고 대접도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사야1:19-20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니라 여호와와 나의 말씀이니라" 살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로 쓰임 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착시켜서 영원히 살리시는 영생의 소망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S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M.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매일성경 독자세미나

역대기하

〈매일성경〉 독자들을 위한 독자세미나가 이번 7-8월호의 본문인 역대기하(歷代記下)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매일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독자는 물론, 지역교회의 목회자들과 묵상나눔 인도자들을 초청합니다.

역대기서(7-8월 본문)

- **일시** : 7.11(목) 저녁 7시 - 9시 30분
- **강사** : 김선익 교수 (미주장신, 구약학 / 미주서부장로교회)
- **장소** : 총현선교교회(민중기 목사)
Tel. 818.549.9191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 **회비** : 자유헌금
(〈매일성경〉과 〈묵상과 설교〉의 보급에 사용됩니다.)

* 성경묵상 훈련이나 독자세미나를 개최하기를 희망하시는 교회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hkohpastor@gmail.com

“줄이세요!”

우리 대부분은 지금 사는 집보다 방이 많기를 바라고 지금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큰 차를 원하고 또 은행의 잔고가 더 많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더 건강하려면 줄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체중을 줄이세요! 더 무거운 수륙

수명이 짧아집니다. 식사량을 줄이세요! 덜 먹어야 더 건강합니다. 말을 줄이세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잠 17:27). 분주함을 줄이세요!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있게 하도록 하십시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주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SNS 활동을 줄이세요! 자칫 “디지털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줄이세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가 돌보십니다 (벧전 5:7).

조이웨일교회
박광철 목사

THE LAKE ISLE OF INNISFREE

호수가 있는 섬 이니스프리

William. B. Yeats

*I will arise and go now, and go to INNISFREE,
이제 나는 일어나 가려네 이니스프리로
And a small cabin build there, of clay and wattles made;
그곳에서 진흙과 작은 나무가지로 오두막집을 지으리
Nine bean-rows will I have there, a hive for the honey-bee,
그곳에서 아홉 줄의 콩을 심고 한 통의 꿀벌을 기르리
And live alone in the bee-loud glade.
그리고 나홀로 꿀벌이 노래하는 숲에서 살리라*

*And I shall have some peace there, for peace comes dropping slow,
그리고 그곳에서 난 평화를 누리리, 평화는 천천히 스며들며
Dropping from the veils of the morning to where the cricket sings;
아침이 열릴 때부터 귀뚜라미 우는 곳까지 물방울처럼 떨어지며
There midnight's all a glimmer, and noon a purple glow,
밤 중에는 어렴풋이 빛나나 대낮에는 진홍빛처럼 빛나고
And evening full of the linnet's wings.
저녁엔 흥방울새들이 떼지어 난다오.*

*I will arise and go now, for always night and day
이제 나는 일어나 가려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I hear lake water lapping with low sounds by the shore;
호수가 낮은 소리로 찰싹거리는 물결 소리를 듣네
While I stand on the roadway, or on the pavements grey,
내가 길가에서나 회색빛 보도에서 있을 때
I hear it in the deep heart's core.
나는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도 그 잔물결 소리를 듣는대네*

〈시 감상〉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

ler Yeats, 1865-1939)는 아일랜드의 시인이요 극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예이츠는 더블린(Dublin)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지만, 어린 시절은 슬리고 카운티(County Sligo)에서 지냈다.

1891년 아일랜드 문학협회(Irish Literary Society)를 창설한 데 이어 동지들을 모아 아일랜드 문학극장(Irish Literary Theater)을 창립하는 등 아일랜드 문예운동의 지도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1923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아일랜드와 영국의 문학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했다.

이 시는 예이츠가 영국 런던의 떠들썩한 아스팔트가 깔린 거리를 거닐며 자신이 자란 아일랜드 시골의 작은 마을 슬리고 인근 호수 위에 떠있는 ‘이니스프리’라는 섬을 생각하면서 쓴 작품이다.

시를 감상하면서 먼저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복잡한 런던의 회색 질은 거리다. 마치 이곳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거리처럼 말이다. 특히 여름철엔 무덥고 시끄럽고, 문명이 가져다 주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심지의 문화의 타락이 범람하는 곳, 이곳 런던은 예이츠에게는 임시적 거처일 뿐이다. 현실에선 도시의 거리를 방향하지만 마음과 정서, 의지, 그리고 더 나아가 영혼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 이니스프리로 향한다. 시의 특징은 시인의 정서 탈출 혹은 영적 탈출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시인은 왜 이 같은 탈출을 시도하고자 하는 걸까? 평화와 평정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런 복잡한 거리에서 침묵 가운데 답하시는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조용한 호수가 물소리 찰싹이는 그곳엔 평화가 있다. 평화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화평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시끄러운 대도시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

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이들이 북잡거리는 곳에서 떠나고 나지막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시인은 비단 자연만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보다 깊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다보며 조용하고 심오한 영혼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시인은 런던의 퇴색된 보도를 걷고 있으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호수가 조용한 물결이 부딪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창조주와 속삭이고 싶은 심정인지도 모른다. 시인은 이 작품 속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서의 생과 사의 운명을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는 듯 하다.

시인의 기저도 55편 7-8절에서 예이츠와 동일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광야는 어디인가? 아마도 조용한 이니스프리이리라. 사람이 없는 곳, 평정만 존재하는 곳일 게다. 거기엔 피난처가 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피난처란 곧 하나님이다.

이 시를 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모두 세상의 광풍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을 간절히 찾고 싶어할런지 모른다. 여기서 세상의 광풍은 죄 덩어리를 상징한다. 다윗 왕도 궁궐에서조차 그 죄의 덩어리를 피할 수 없었나 보다. 현대의 부패한 문화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인은 정신적 안식과 심오한 신의 세계를, 차원 높은 이니스프리와 같은 신천지를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는 듯 하다.

☞ 표현: wattles(작은 나무가지), glade(숲사이에서 있는 빈터), full of the linnet's wings(방울새가 떼지어 날다)



백호식 교수
아메리칸침례대학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 대회

장애우 사랑교회에서 1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찬송 잔치를 엮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 봉사, 마음, 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p>중양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06 S. Bonnie Brae St., L.A., CA90057</p> <p>1차 찬양대회: 2013년 6월15일 토요일 오전10시</p> <p>2차 찬양대회: 2013년 12월21일 토요일 오전10시</p>	<p>그랜드 파크 양로병원 Grand Park Convalescent Hospital 2312 W. 8th St. Los Angeles, CA, 90057</p> <p>부활절 예배: 2013년3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p> <p>추수감사절예배: 2013년11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p> <p>성탄절 예배: 2013년12월20일 금요일 오전9시30분</p>
---	--

☛ 협찬 남가주 교회협의회, 남가주 한인 문화, 열매 사랑교회, 믿음의 우산을 전하는 선교교회, 데이빗 맥 번시 그룹, 미정환 변호사 그룹, 가우 앙로호텔, Lahenco, Inc. 웨딩터 제공자, 남가주 흥매도 도모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 사랑교회 T. 213-705-0404 F. 213-251-8930 P.O.Box 742017 LA., CA90004

프로 골프 선수 지망생 모집

- 현재 타수가 보기 플레이(90타)이하
 - 대상 : 7세~11세 (1~2명)
 - 코리아타운내 픽업가능
 - 문의 : 310.598.0746/mr.jacob601@hotmail.com
- 최 제이콥 목사(Sport Missionary Professor)



Three-Level English Education <3단계 영어교육>

English (초급 영어)

▷John: Does your sister like her school?
당신 언니는 그녀의 학교를 좋아하나요?
▷Maria: Yes, She does very much. 네, 매우 좋아합니다.
▷John: Do you like your car?
당신은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Maria: Yes, I do. But I want to buy a new car.
네, 좋아합니다만, 새 차를 사고 싶군요.
▷John: That's really great.
새 차를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Maria: I need to save money for my new car.
전 새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John: I wish you to have a new car pretty soon.
당신이 곧 새 차를 사시길 바랍니다.
▷Enjoy a blessed day.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Maria: You, too. 당신도요.

English (중급 영어)

No one has ever seen God. The only Son, who is truly God and closest to the Father, has shown us what God is like. The leaders in Jerusalem sent priests and temple helpers to ask John who he was. He told them plainly, "I am not the Messiah." Then when they asked him if he were Elijah, he said "No, I am not." And when they asked him if he were the Prophet, he also said, "No!" (John 1:18-21).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요 1:18-21)

English (고급 영어)

All the world's a stage,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 They have their exits and entrances. And one man in his time plays many parts, his acts being seven ages.

세상은 모두 하나의 무대다. 그리고 모든 남자와 여자는 연기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에게 나가고 들어오는 문이 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그의 때가 되어 여러 역할과 7시대의 장면을 연기한다.(셰익스피어의 The Man of Seven Ages - As You Like It 중에서)

▶Seven Ages: (1)Infancy (2)Childhood (3)The Lover (4)The Soldier (5)The Justice (6)Old Age and (7) Extreme Old Age

Dealer No. 62655 www.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Cell. 323-737-5900

마태복음 5:3-10(8복)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혜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323-737-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조나단 에드워즈 통해 회복과 갱신 모색해야”



2013 서울 조나단 에드워즈 컨퍼런스가 8일 남서울교회 본당에서 열리고 있다.



강의를 전하는 정성욱 교수

신앙고백들과, 칼빈을 따르는 대표적 신학자들의 고전적 저서들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은 발달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성욱 교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저서 '신앙감정론'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는 바로 실천적 영성의 결핍"이라며 "말과 입술의 신앙고백은 있으나, 그 신앙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살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실천의 문제가 성경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과 신앙고백의 일치한 삶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으며, 특별히 그의 '신앙감정론'은 실천적 영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며 왜 실천적인 삶이 중요한지 또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탁월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상용 교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저서 '사랑과 그 열매'에 대해 고찰하며 강의를 전했다. 이 교수는 "사랑과 그 열매"는 에드워즈가 1738년 노샘프턴 교회에서 연속 설교한 원고를 출간한 것"이라며 "1734년경 코네티

컷 강 유역 수십 개 마을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사그라지고 난 후에, 에드워즈는 한편으로 진정한 회심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례들이 거짓이었음을 발견하게 돼, 참된 회심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설교들을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조현진 교수는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와 한국교회"란 주제로 강의했다. 조 교수는 "에드워즈는 형태상 청교도들이 애용한, '성경본문-짧은 주제-교리-적용'으로 구성된 설교를 했다.

에드워즈의 설교 내용을 분석하면, 그는 인간의 내면의 거룩한 감정에 호소했고 삶의 변화(행위)를 강조했다. 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하고, 교리 중심의 설교를 했다"며 한국교회는 18세기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과 설교가 주는 교훈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현찬 원장은 "이중적 상실의 시대"를 사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상실의 시대를 넘어 영적 모범이 되는 에드워즈를 통해 개인의 영성과 목회자의 참 모습을 회복하고 나아가 한국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찾을 수 있을지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상실의 시대 한국교회 '영적 나침반' 을 찾다

세상적 탐욕으로 '순전한 기독교'를 상실한 시대, 한국교회 위기 탈출의 해법을 개혁주의 신앙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큐리오스 인터내셔널(대표 정성욱 교수)과 워싱턴트리니티연구원(원장 심현찬 목사)이 공동 주최한 '한국교회와 조나단 에드워즈: 상실의 시대 한국교회, 영적 나침반, 에드워즈' 컨퍼런스가 8일 오후 1시 서울 반포동

남서울교회(담임 화중부 목사)에서 개최됐다. 정성욱·이상용·조현진 교수와 심현찬 원장이 발제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청교도 개혁신학자이며, 동시에 청교도의 테두리를 넘어서 기독교 서구 신학의 중심적 흐름에 창조적 공헌을 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다

개혁신앙, 개혁교회, 개혁주의 신학이란 썸빙글리와 칼빈에 의해 시작된,

스위스에서의 개혁운동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네덜란드·프랑스 등지로 확산됐으며, 이런 개혁교회의 신학을 보통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한다. 개혁주의는 넓은 의미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과 그 신학을 말할 수 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을 통해서 이해된 성경 교리 사상 체계와, 개혁파 교회들이 채택한 공적

동성결혼 합법화가 '대세' ? 美 복음주의자들은 '정반대'

93%가 전통적 결혼 지지 10년 전보다 3% 증가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종교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최근 바나리서치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32%는 "법이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 등에게 보

다 큰 자유를 주도록 변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03년에 비해 8%나 오른 수치다. 가톨릭 교인의 경우는 57%, 타 종교인은 63%, 무신앙인은 89%가 이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개신교를 제외한 세 그룹 모두에서 과반 이상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했다. 2003년 조

사에서는 신앙이 없는 그룹만 66%로 과반이 찬성했다. 근 10년 만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복음주의자의 5% 가량은 성소수자의 법적 권리 보장에 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2003년 이래 오히려 7% 떨어진 수치다. 93%의 복음주의자들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10년 전에는 90%였다는 점에서,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전통적 결혼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추세다.

10년 전 "동성결혼은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한 복음주의자가 95%였지만 이 조사에서는 무려 9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연구를 진행한 데이빗 키나멘 대표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복음

주의자들의 태도는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고 정리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이 원리원칙적 태도를 고수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꼭 막힌 사회적 관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확실한 것은 복음주의자들은 사회적 여론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라 밝혔다. 김영신 기자

Web Program Web Design

Our Services

- 기능,속도 문제 수정
- 프로그램 오류,버그,바이러스
- Maintenance 및 관리
- 어드민 기능 추가
- 웹프로젝트 추진
- 지원가능한 CMS :
OPENCART, CS-CART, PRESTASHOP, X-CART, MAGENTO, XE , WORDPRESS등
- 메인페이지 리뉴얼
- 어플 제작(안드로이드)

기독교일보 웹개발 사업팀
T. 213 718 1512
chdailya@gmail.com

美 대학에서 "십자가 목걸이 하지 마" 논란



오드리 자비스 양

캘리포니아의 소노마주립대학교의 교직원인, 파트타임 직원으로 근무하는 여학생의 십자가 목걸이 착용을 금지시켜 논란이다. 그는 "십자가 목걸이가 다른 이들에게 상당히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당사자인 오드리 자비스 양(19)은 십자가 목걸이를 계속 착용하기 위해 종교 편의(religious accommodation) 규정을 들고 대항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종교 편 규정 따르면, 근무지나 거주지 등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의상·장신구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무슬림 여성이 특정한 시기에 얼굴의 일부를 천으로 가린다면, 유대인 남성이 절기를 맞이해 특별한 모자나 의상을 착용하는 등, 종교적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

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자비스 양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법률단체(Liberty Institute)는 "요즘 같은 다양성과 관용의 시대에 대학 관계자가 이렇게 명백한 종교 차별을 하다니 놀랍다"고 밝혔다.

자비스 양은 조만간 열린 학생회 주최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돕는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상사는 자비스 양이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를 금지하려 했다. 그 상사는 "우리 대학은 종교적 용품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십자가 목걸이는 신입생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거나 학생회 참여를 꺼리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비스 양이 이를 거부하자 "목걸이를 티셔츠 속으로 숨기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자비스 양은 "나는 가톨릭 신자이며 내 신앙심의 상징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한다"며 캘리포니아의 종교 편 규정엔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남을 해하지 않는 한 나에겐 신앙을 표현할 특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비스 양의 부모도 "이건 멋으로 착용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표현이다"라고 말을 응조했다. 김미란 기자

흑인우월주의·일부다처 종교 집단 교주 종신형



교주 피터 모지스 주니어

일부다처제를 고집하는 신흥종교 집단의 교주가 4살 남자 어린이와 1명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교주인 피터 모지스 주니어(Peter Moses Jr.)는 검은 히브리 이스라엘(Black Hebrew Israelites)이란 종교 집단을 노스 캐롤라이나 주 더럼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이 집단은 곧 인종전쟁이 발생할 것이며 흑인이 지배적이고 우세한 종족으로 남는다는 교리를 갖고 있었다.

들은 교주를 남편으로 받들고 동시에 때로는 주님(Lord)으로 부르기도 했다.

교주는 4살 짜리 남자 어린이가 동성애자라고 의심했으며 이를 이유로 머리에 총격을 가했다. 또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종교 집단을 떠나려 하자 총을 쏘 살해했다. 2010년 살해된 이들의 시신은 그들의 거주지에서 1년 뒤에 발견됐다.

이 살인 사건에 관해 이 종교집단에 속한 7명이 모두 기소됐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풀려났다. 모지스의 변호사는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괴물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변호했지만 판사는 "내가 본 사건 중 가장 최악이다"라고 경악했다.

교회혁신학교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주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혜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헌 목사, 백성영 목사
백이나 및 수양관 사용
여러분의 환영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 (714) 932-8993, (760) 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창-소년부 오전 11: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EM)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할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물통(통)하여 만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15(EM찬신)
5부예배 오후 3:00(EM찬신)

장애유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최상훈 담임목사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월-우요일)
오전 12:00 (분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신·구 이사장 이취임식 및 2기 이사회 정기총회

명예이사장 최문환 장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신·구 이사장 이취임식과 2기 이사회 정기총회를 2일 미주평안교회에서 개최했다.

〈기사 1면으로부터 받음〉
격려사를 전한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은 “최문환 장로님은 넓고 해맑은 아이와 같은 마음과 열정을 가진 분이다. 또 그동안 교계 연합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분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남가주 교계를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최문환 장로는 명예이사장 위촉패를 전달받았으며, 2기 신임 이사들이 신임 이사장으로부터 이사 배지를 증정 받았다. 예배는 사회 이성우 목사, 기도 백은학 장로, 설교 송정명 목사, 성시화 사역보고, 이임인 사람, 위촉패 전달, 특송 유민 장로, 취임인 사람, 위촉장 전달, 2기 이사명단 발표, 축복

기도 박성규 목사, 축하송 정현주 집사, 축도 송정명 목사로 진행됐다.
한편 성시화운동본부는 10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3박 4일 동안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2013 서울국제성시화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미주대표단 250명, 메시아여성합창단 미주대표단 200명을 모집 중이다.
성시화 운동은 1972년 CCC총재인 김준근 목사가 춘천복음화 성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춘천을 제네바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로 만들어보자는 비전을 제시하며 시작했다.

토마스 맹 기자

OC목사회, 목회자 위한 악기 무료레슨 연다

OC목사회(회장 신종은 목사)가 찬양사역자가 없어 예배에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악기를 무료로 가르쳐 목회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모집은 7월부터 수시로 이뤄지며,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효사랑선교회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강사로는 기독교음악교육을 전공한 이상권 목사(한국인터넷신학대학 교회음악학교 수, 남가주빛과소금교회 음악목사)가 나서 교회 음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비롯해 교회 찬양팀 운영의 시작과 구성, 찬양음악의 실천 등 악기를 배우며 목회 현장에 필요한 교회 음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목사회 관계자는 “목회자들이 희망하는 악기를 빠른 기간 내에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목회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찬양인도에 참여하여 악기를 연주해 성도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더 긴밀한 은혜를 나눔으로써 목회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 활력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이번 레슨에 참여한 목회자들로 목회자 찬양단을 구성해 미자립교회 순회, 목회자 교계모임활동 동역, 교회 순회 정기찬양집회 등 교회 성장과 영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연장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많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효사랑선교회 주소: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문의:(714) 670-8004, (562) 833-5520
박창민 기자

밀알선교단 ‘사랑의캠프’ 성황리에 열려



이영선 목사

미주밀알선교단 서부지단들이 연합으로 주최한 ‘밀알장애 청소년을 위한 제 15회 사랑의캠프’가 지난 6월 27-29일 UC 산타바바라 캠퍼스에서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장 34-35)”라는 주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캘리포니아를 비롯 밴쿠버, 시애틀 지역 사랑의교실과 ANC온누리교회·감사한인교회·베델한인교회·세리토스장로교회·주님의빛교회·주님의영광교회·나성한인교회·토렌스제일장로교회·선한목자장로교회·선한정지교회·작은예수회 등 각 교회 소속 장애인 15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 중 90% 이상이 자폐아로 부모 이외에는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PPOG(Passionat People of God)와 TRAC(The Roof Above Christ) 팀원 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 총 240명의 도움으로 수영, 댄스파티 등 각종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됐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청소년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성인반이 신설돼 성인 장애인들이 따로 모여 말씀과 찬양, 간증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영선 남가주밀알 단장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봉사자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의 모습이 내년에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성결혼 합법 위기 속 ‘자녀’ 위한 기도회 열린다

효사랑선교회 주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김영찬 목사

지난 6월말에 연방대법원에서 결혼보호법(DOMA)과 주민발의안(8(Prop. 8))이 각각 위헌으로 결정되고 기각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각 주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피할수 없게 됐다.
결혼보호법이 위헌이 되면서 초래되는 것은 먼저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앞으로 어떤 법안으로 결혼에 대한 정의가 바뀔지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효사랑선교회(김영찬 목사)는 크리스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기도회를 갖는다.
김영찬 목사는 “이제는 자녀들을 학교 교

육에만 맡길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라며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질함을 갖게 한다. 우리 자녀들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결한 리더십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로 양육시켜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 기도회에 관심있는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효사랑 선교회
▷주소: 7342 Orangethorpe Ave # B113 Buena Park CA 90621
▷문의: (714) 670-8004, (562) 833-5520
토마스 맹 기자

● 기쁨의 가정 ●

백문이 불여일견

다른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상황에 똑 같이 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과 생각과 고민, 그리고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지혜로운 옛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서 배우고 들어서 알아도, 직접 경험해 보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의든 아니든 어쨌든 제 아내와 역할을 2달에 한 번은 3~4일 정도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미나나 일로 집을 비우게 되면 제가 역할을 대신합니다. 아내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무척 복된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얼마나 제 아내에게 감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가정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집에 무엇이 필요할지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 주어야 잘 먹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좋아한다고 그것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영양가를 생각해야 하고 고풍 먹어야 하고, 저의 가장 작은 아기가 잠을 잘 때 가장 한가하게 설거지를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빨래도 널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도사리가 얼마나 스트레스와 고민이 되는지, 매일 매일 한 끼 한 끼 무엇을 먹을까 고민이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불렀는데, 아이들이 늦게 와서 식을 때 오는 안타까움과 실망감도 모두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제 아내가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를 깊이 이해할수록 더욱더 사랑스러워집니다.

내가 현재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데에 제 아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제 아내에 이 작은 도움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더욱 더 사랑스럽게 아내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 아내에 매일 매일 이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저는 단 두 달에 3~4일 정도만 돕는데도 깊이 감사를 저에게 표할 때, 정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 가정에

게 주셨나 다시 한 번 깊이 느끼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아이들의 신뢰를 얻게 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자기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우리 사이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때는 아내가 저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몰랐던 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더 커져갑니다. 서로의 위치를 바꾸어보지 않으면 자신만 힘든 것으로 착각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가슴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의 마음을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부부관계 만이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혹은 실제로 창조적으로 역할을 바꾸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이해할 것이고, 자녀는 또한 부모를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이 확대되어 성도 간에도 역할을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좀더 이해함이 생길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도, 친척 간에도 서로 입장을 바꾸어 봅시다. 이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체질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역할을 바꾸어 보는 훈련, 오늘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확대시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으로 인한 신비로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상담학 박사 김훈 목사

엘림장애인 선교회 14주년 창립감사



엘림장애인선교회 LA지부 창립 14주년을 맞이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4년 전 엘림장애인선교회의 LA지부 형식으로 설립된 사랑의미선교회(지부장 김천환 선교목사)가 지난 27일 오후 소프라노 진복일 씨를 초청한 가운데 창립기념 간증집회를 열었다. 지부장 김천환 목사는 "오늘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 덕분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목사는 이날 "여러분이 다윗의 세 용사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다윗에게

총성스러운 용사들과 부하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있었기에 다윗의 위가 견고해질 수 있었다"면서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믿어 전도와 선교, 섬김에 힘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 나가자"고 독려했다.

한편, 김천환 목사는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엘림장애인선교회 주최로 열리는 제24회 산상부흥대성회 참석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BIZ]

베스트 영어 훈련원

〈베스트 영어 훈련원〉은 생활영어를 말할 수 있게 훈련(연습)하는 곳입니다. 현재 LA 한인타운과 플러튼에서 영어회화를 할 수 있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하고도 말을 못하는 것은 공부만 하였고 말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어회화는 말하는 기능이지 학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문으로만 공부하였던 것입니다. 스키 선수가 훌륭한 스키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스키 이론을 10% 정도 공부하고 90%는 실제로 스키 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 것은 100% 스키 이론만 공부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결과로 한국에서 10년 이상 공부를 하고도 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베스트 영어 훈련원〉은 가장 좋은 교재를 가지고 실제로 말하는 훈련을 합니다. 교재에는 상황이 설정된 대화가 나오고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구조와 미국식 발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팀을 나누어 실제로 말하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12주(3달) 프로그램으로 LA와 플러튼에

서만 23기를 끝내고 현재 제24기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서 왜 3개월 단위로 훈련(연습)해야 하는지와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듣고, 등록하신 후 훈련을 시작합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누구나 이곳에서 훈련(연습)을 하면 영어회화가 가능합니다.

LA 지역은 7월 22일(월)부터 10월 9일(수)까지 주 3회(월/수),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 저녁에는 7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진행되며, 무료설명회는 7월 22일 오전 10시와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플러튼 지역은 7월 23일(화)부터 10월 12일(토)까지 주 3회(월/화/수/목/금/토), 월화수반은 오후 7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진행됩니다. 무료설명회는 7월 24일(수)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등록비는 580불이며 점수는 설명회 당일에 받습니다.

▶LA 훈련장소: 3251 W. 6th. #101 LA, CA 90020 ▶플러튼: 1309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전화: (213) 239-4815, (213) 507-0691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정애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11:00
한아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예배 오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재배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재배 8:00 분당

남가주 잠실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7:00
EM/영아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제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외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방익수 담임목사**
중, 고등부 오후 3시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3시 한국교회 (토) 오전 10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성숙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92620
T. (949) 654-0191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받은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본당)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10:00(미리본당)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55(미리본당)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미리본당: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미리본당 건물)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본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림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강림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론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강림으로 굳건한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천과 생활의 사랑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부름을 잃고 인도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하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침야예배 오후 8:0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저씨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감을 건너 세게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 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확장 이전 기념 세일!



확장기념으로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탈모닷컴(www.talmo.com)에서 베스트셀러인 최고급 제품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탈모 프리미엄 제품인데 한국에서 298,000원에 팔리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300불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탈모에 고심하거나 발모를 원하시는 분이나 번비가 심하시거나 다이어트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 특히 피부건강에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구연산이나 소금을 300불이치 구입하시는 분들께 300불짜리 한 박스(6개 작은박스들이)를 드립니다. 그리고 덤으로 16온스 소금(소비자가격 40불) 상당을 더 드리며, 200불 이상 구매 고객분들께는 산삼 한 뿌리도 증정합니다.

\$300불 HQ헬스 제품 구매시 \$300 탈환제품 (제품 품질때때까지)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100 구매시마다 미네랄 소금 1봉지 16온스(파운드) 소비자가격 40불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프로모션 A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280 \$100

프로모션 B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270 \$100

프로모션 C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280 \$100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쓰시면 암, 차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다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올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로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번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주던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망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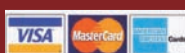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응연연구소 수료 의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신약에 더 있다

오경준 | 홍성사 | 280쪽

‘말씀의 광산’ 성경 속에는 가공하지 않은 ‘원석’이 숨어 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짚어 가며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의 다층적인 원뜻을 살펴봄으로써 행간과 사연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본래의 뜻을 밝혀낸다. 대수롭지 않게 인용되던 구절과 사연들이 얼마나 심오한 뜻을 품고 있는지 깨우쳐 준다.



고요한 마음

조신영 | 비전과리더십 | 284쪽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의 비밀’을 담고 있다. 고요한 마음은 삶의 현실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누리는 평화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쁘고 즐거울 때도 미동하지 않는 절대 고요의 상태다. 세월의 흐름에 결코 소멸되지 않는 불변의 가치, 절대 사랑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절대 고요를 누리게 된다.



후밀리타스

존 딕슨 | 포이에마 | 224쪽

‘겸손’을 뜻하는 영어 ‘humility’의 어원인 라틴어 단어를 겸손이야말로 위대한 리더십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치열한 경쟁을 통과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존해야 하는 시대에, 이 먼지 앉은 고대의 미덕을 꺼내든 이유는 ‘겸손한 사람이 영향력과 감화력이 더 크다’는 진실 때문이다.



바울의 생애 서신들과 신학

최건수 | 쿤란 | 272쪽

바울의 삶과 그의 사상을 알지 못하고는 신약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바울신학의 중심인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을 ‘생애-서신들-신학’ 등 3부로 풀어낸 책. 바울의 삶과 그의 서신들, 그의 설교와 신학의 중심 주제들, 그의 윤리관과 경제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REVIEW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부여하신 소명은 무엇인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제자화하며,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라”

날이 갈수록 ‘여성성(女性性)’이 강조되는 시대다. 여성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의 절반에 다다랐고, 최근 신혼부부들 사이에는 여아(女兒) 선호사상까지 생겨나고 있다.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고, ‘아빠’들에게는 ‘엄마 없이 자녀들과 여행을 떠나는’ 친근함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자의 소명(지평서원)>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강하고 확신에 찬 ‘기독교적 남성성(男性性)’ 회복을 촉구하는 책이다. 저자는 최근 남성들에게 있는 ‘여성적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를 ‘어리석은 문화’라 진단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가 없거나 자녀들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

버지 밑에서 성장하면서, 남성성에 관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북이스라엘이이며 미군 기갑부대 장교와 육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의 저자 리처드 필립스(Richard D. Phillips)는 “성경은 우리가 충실히 따라야 할 남자의 소명을 제시한다”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때 어떤 남자가 되기를 바라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저자는 창세기 1-2장을 통해 성경은 남성을 ‘주인자 종’으로 부르셨고, 남성이 되는 방법을 ‘일하고 지키는 것’이라 말한다. 구체적으로 남편으로서의 영적·감정적 차원에서 아내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아버지로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가꾸고 돌

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독교인 남성은 경작하고 세우고 양육해야 할 뿐 아니라 사람들과 사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그레야 경작하고 기른 열매를 잘 보존할 수 있다.” 이후에는 이러한 ‘남자의 소명’을 삶과 사역(일터·가정·교회)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독교인이 라면, 노동과 자아,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의 행동과 성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남성들은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 표본은 ‘인도하고(일하다) 보호하며(지키다) 보살피는(일하고 지키다), 자신을 희생하는’ 목자(牧者)이다.



남자의 소명 리처드필립스(조계광역지평서원)272쪽

평범할 수 있지만, 근면한 일꾼이자 충실하고도 자상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 한다는 저자의 ‘남성성’은 분명 세상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남자의 소명’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외에 진실한 우정,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회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남자의 소명이야말로, 타락한 세상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 남성이 있어야 여성이 아름다워지고, 여성이 있어야 남성이 빛을 발하는 법, 그래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다. 이대웅 기자

척추 전문 한방병원 장수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뺀척추
-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생활속에서 **바른 자세와 올바른 생활 습관**만 지켜주시면 척추교정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앉아 있을때** 자연스럽게 못하거나 **수면을 취할때** 잘못된 자세 또한 **운전중** 잘못된 습관 등으로 척추에 변형 때문에 척추 디스크가 발생하며 심한 통증을 유발하거나 저리며 뻣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세교정**과 **척추 교정** 및 **맞춤운동**으로 척추 디스크에서 해방되십시오. 척추는 우리 몸의 대들보입니다.

장수한의원에서는 **20주년 특별 할인 행사**로 저렴하게 척추 통증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합니다.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713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미국 독립기념일과 혁명전쟁



민중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해지고 있으며, 토마스 페인은 "상식"(Common Sense)이라는 책을 통하여 아메리카와 같은 거대한 대륙이 작은 섬나라 영국에 의하여 통치를 받는 것은 자연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영국의 과세 부담에 대하여 "대표 없는 과세도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13개 식민지의 저항은 곧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전쟁의 시작은 영국 황실의 군대가 메사추세츠주 렉싱턴을 침공한 1775년 4월19일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1783년 9월3일에 이르는 8년에 걸친 독립전쟁이 이어진다. 치열한 전쟁 중에서 결국 미합중국은 1776년 7월4일 독립을 선언하므로 이 전쟁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혁명전쟁이자 독립전쟁이 되었다.

1783년 파리평화회의에서 아메리카 합중국은 세계 속의 새로운 나라로 독립을 승인받았다. 1787년에는 헌법을 제정하여 왕정이 아닌 시민이 중심이 된 공화정을 선택하고, 독립전쟁의 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미합중국 최초의 대통령(1789-97)으로 선출하였다.

이 전쟁을 통하여 약 25,000명의 미

국 혁명군이 군 복무 중에 죽었다. 그 중 약 8,000명은 전사했으며, 17,000여명은 질병으로 죽었다. 혁명군의 부상자는 약 8,500명에서 25,000명 사이로 추정되므로, 미국인 총 사상자는 50,0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영국의 군대는 세계 최고의 막강한 군대였다. 171,000명의 해군이 전쟁 중 영국군으로 참전하여 1,240명이 전사했고, 18,500명이 질병으로 죽었다. 그러므로 영국군은 약 20,000명이 죽었고 독일군 용병도 7,500명 정도가 사망함으로 약 2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갔다.

전쟁은 인간의 생사가 갈리는 인간의사의 가장 커다란 재난이다. 개인의 생사뿐 아니라 민족의 흥망도 결정되는 중요한 사건이 전쟁이다.

세계사는 전쟁사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전쟁이 지구상에 있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거나 부상시킴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의지대로 강제하려는 인간의 참혹한 활동이다. 이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은 모험이다. 그러나 이 모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다.

우리가 겪은 6.25전쟁, 미국의 독립전쟁을 통하여 볼 때, 전쟁은 하나님의 역사 운영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이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구원하시기도 하며, 나라를 없애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국제정치를 자신의 손 안에 두시며, 개인과 집단의 상황을 건 싸움을 통하여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진작시키시며, 죄를 청소하시는 위대한 일을 수행하신다. 사람은 욕심과 교만과 위신을 위하여 싸우는 경우가 많으나,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뜻만을 세우실 뿐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전쟁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첫째는 전쟁이 군대의 수와 장비의 우위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지만, 이길은 오직 여호와께 있을 뿐이다. 미국의 독립전쟁으로부터, 나폴레옹이 유럽대륙 전체를 향하여 싸운 싸움, 한국전쟁, 월남전이 또한 그러하다. 성경에서도 여호사밧 전쟁, 기드온 전쟁, 아브라함 전쟁 등이 그러하다.

둘째로 어제 전쟁에서 이겼다고 오

늘도 이기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모험이다. 미군의 많은 숫자와 장비로도 비정규군이 주축이 된 베트남을 이기지 못했다.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이 베트남에서 물러난 것은 의외이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담보하지 않는다.

유럽 전체를 향하여 연전연승하던 나폴레옹도 워털루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함으로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결과에 대한 예측을 불허하는 것이 전쟁의 일이므로,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고백한다.

셋째로, 전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가장 확실하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창 12:3)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의 모험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다.

7월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이다. 1776년 7월4일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미 동부 13개주 식민지에서 모인 대표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패트릭 헨리는 영국 정부를 향하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부르짖었다고 전

“넓은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은 바닷 빛깔 때문입니다. 얼마나 바다가 넓으면 바닷빛이 지구의 색깔을 결정지을까요? 그 넓은 바다에 물이 집결한다는 것은 바다가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물은 낮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이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곳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이른 물은 증발되어 대기로 올려집니다. 물의 흐름을 접하면 깨달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을 선호합니다. 성공의 꼭지점이 높은 곳에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역설적으로 성공은 남들이 거들떠도 보지않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합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일수록 낮은 곳을 선호합니다. 자꾸만 자세를 낮춥니다. 하늘을 향해 높이 비상하는 새일수록 그 자세를 최대한 낮추듯이 말입니다. 성경도 동일

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야고보서 4:10)"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에 남부에 사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표면보다 무려 418미터가 낮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원지대로부터 발원하여 요단강을 통해 흘러 내려온 물은 사해에 집결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집결된 물은 고온건조한 유대 광야의 강한 바람에 실려 빠른 속도로 대기 중으로 증발합니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는 최선의 통로가 됨을 자연의 법칙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 생명력을 불러 일으키는 물의 집결지는 바다입니다. 바다가 지구 색깔을 결정짓고, 대기권을 형성시키며,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별이 되

록 만드는 원천지입니다. 사람들은 넓은 바다를 동경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동경은 하지만 낮은 곳을 주목하지 않기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자리를 고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위치에 머무를 때마다 영광을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영광이 선포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태복음 3:17)"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를 고수하시니 땅이 진동하며 하늘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며 돌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마태복음 27:54)"

우리가 선택해야 할 자리는 높은 곳이 아닙니다. 낮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낮은 곳을 외면하면 끝입니다. 자연의 법칙, 인생의 이치, 성경의 원리는 낮은 곳을 주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생각도 낮추고, 태도도 낮추고, 언어도 낮추어야 합니다. 선포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한번 바다로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우주 공간에서 바라본 지구는 푸른 별입니다. 지구가 푸르게 보인다는 것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맵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 : (213) 402-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농협 **홍삼**은 100% 대한민국 민족기업

한삼인은 정직합니다

www.korginseng.com 323.737.8888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사랑헬스케어는 여러분을 의료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크리스천 헬스케어 플랜 월\$62부터

크리스천 건강검진 플랜 월\$30부터

16만 크리스천 가정과 많은 기독교 단체가 **건강보험 대신 Healthcare Sharing Ministry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621 S. Virgil Ave. #410 Los Angeles, CA 90005
 Tel.213-986-8119 Fax.213-254-0464
 www.saranghealthcare.org

문의전화 이원준 전도사 213-700-9212
 제임스정 전도사 714-873-8724

이상명 목사의 성서로 문화 읽기

“이제 가치 전쟁이다”



이상명 목사
미주장신대 총장

젯빛 구름에 가려진 하늘은 더욱
을씨년스럽다. 그것을 배경으로 광풍
이 휘몰아친다. 그 광풍으로 인해 세
상의 온갖 티끌도 덩달아 바람결에
따라 미친듯 솟아 올라 한바탕 난동
부린다. 물리적 환경의 기상도가 아니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기상도다.

‘을씨년스럽다’란 말은 우리나라 역
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을사늑약’이
1905년 강제되면서 백성들의 침울한
마음 상태를 어수선하고 흐린 날씨에
비유하여 ‘을사년스럽다’고 표현한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세상 속에서 복음적 가치의 퇴조가
마치 을씨년스럽게 진행되고 있어서
한 말이다.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부
상한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적 가치가
도전 받은 때가 있었던가? 21세기는
총성이 울리지 않는 거대한 가치 전
쟁터이다.

불안한 그곳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란 무엇인
가? 그것은 성서적 가치다. 좀 더 구
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에토
스(ethos)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
한 복음적 가치다. 기독교적 가치를
다시 꺼낸 이유는 그것이 서구 사회
의 정신적 주춧돌 역할을 하던 때를
막연히 그리워함이 아니다. 방향을 잃
고 표류하는 배를 타고서 망망대해를
헤매는 표류자의 심정에서 하는 말이
다. 복음적 가치를 동력으로 하여 항
해하던 배가 갑자기 거친 세속의 난
류(亂流)를 만나 표류하게 되었고, 심
지어 동력도 나가 버린 상황이 된 듯
혼란스럽다. 그것을 거슬러 순항하지
못하면 결국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질
터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오히려 절
박하지 않다. 오히려 느긋하다. 이 느
긋함이 불안하다. 다만 이 불안함을
의연히 떨쳐 버리지 못하는 믿음의
부족을 탓해야 할까? 아니면 복음적
가치를 몽골듯 돌아가는 악한 역사의
맷돌이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
에 그것을 느끼지 못함인가?

거대 서사를 잃어버린 포스트모
던 사회

정보 혁명의 전 세계화가 시작된
1957년을 기점으로 세계는 산업사회
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이전하였다. 이
러한 이전과 함께 탈중심적 다원주의
와 탈이성적 사고를 그 특징으로 하
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어니트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 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21세기 포스트모던 사회는 성서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적 가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왜 그러한가?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면서
분열과 해체를 지향하는 사조이다. 절
대 진리의 해체는 동시에 가치의 무
의미성으로 치닫게 된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프랑수아 리오
타르(Jean-François Lyotard)는 포
스트모더니즘을 “거대한 서사들의 종
말”이라고 정의했다. 거대한 서사라
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어떠
한 곳인지,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
는 형이상학적인 커다란 이야기, 즉
거대 담론을 뜻한다. 그는 우리가 살
고 있는 시대는 더 이상 어떠한 거대
서사들도 설 자리를 잃어버린 시대라
고 정의했고, 이를 포스트모더니즘 시
대의 큰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
한 거대 서사들 가운데 하나가 서구
의 2천 년 역사를 지배해 온 예수 그
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야
기다. 인류를 위해 십자가 상에서 스
스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야기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다는 복음과 그 가치가 도전당할 뿐
만 아니라 다른 가치로 대체되고 있
는 심각한 상황이다.

포스트모던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
간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살아야 할
목적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
다. 기술사회 속에서 점차로 인간은
최대의 이익과 실용과 기계적인 효율
의 논리에 지배를 받게 되었다. 컴퓨

터의 2진법 언어로 처리될 수 없는 형
이상학적 언어들은 컴퓨터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무시되거나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만다. 즉 성서인 신비, 윤리,
도덕, 목적, 당위성, 의미와 관계된 언
어들은 점차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 대신 효율성, 능률성, 가
능성, 적합성, 실용성과 이해관계만이
중심이 되는 세계가 건설되고 있다.
거대 서사가 사라진 자리에서 퇴폐적
인 감각 문화, 생각하는 과정을 생략
케 하는 자극적인 영상 문화, 즉흥적
인 인스턴트 문화, 인간을 사회의 한
낱 부속품으로 전락시키는 소외 문화
가 비운 뒤 버섯처럼 자라기 시작하
였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권위
와 전통에 대한 거센 도전이다. 성서
와 교회에 대한 도전 또한 매섭다. 더
불어 복음적 가치에 대한 거센 저항
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수 그
리스도의 거대 담론을 잃어버린 세
대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대신 세
상은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돌
아간다. 삭막한 모래 바람이 부는 사
막을 향해하는 느낌이고, 망망대해에
서 표류한 배에 승선한 느낌이다.

복음적 가치, 포스트모던 사회를
향해하는 교회의 밸러스트

상황이 이러한데, 교회마저 기술
적인 매뉴얼의 언어로 무장하고 복음
적 영성이 빠진 변영의 신학을 강조
하고 경쟁적 성장주의와 상업주의와
자본주의의 영향권 하에 놓여 있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은가? 교회가

기댈 것은 그런 세속적 가치가 아니
라 복음적 가치다. 포스트모던적 세
상이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와중에 교
회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
대 담론이 현대인들의 공허한 마음에
크게 울리는 법이다. 부박한 세상이
되어갈수록 교회는 더욱 복음적 가치
를 전해야 한다. 포스트모던 가치가
대세라고 교회가 주눅들 일이 아니다.
이것 저것을 복음과 섞은 유사 복음
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중심을 잡아주는 밸러스트(ballast)
가 없는 배로는 거친 바닷길을 항해
할 수 없듯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상실한 교회는 험난한 포스트모던 사
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결국 도태
되고 만다. 역사 한가운데서 요동치는
거대한 진자추가 한동안 광포하게 혼
란과 죽음을 향해 쏠리겠지만, 언젠가
인류는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저항하고 버렸던 예수 그리스
도의 복음이 진정한 진리임을 깨닫는
날 말이다. 그 진자의 추가 방향을 틀
어 생명과 구원의 방향으로 되돌아가
고야 한다는 믿음으로 복음적 가치를
선양할 터이다. 광포한 바다 위를 걸
어서 오셨던 예수님이 혼비백산한 제
자들을 실은 배 위에 서서자 평온해
진 것처럼, 복음적 가치와 하나님
의 주인의식을 믿는 믿음은 교회
가 혼란한 세상을 뚫고서 항해할 수
있는 동력이다. 포스트모던적 카오스
(chaos)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강력
한 무기이다.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열 아홉번째 지팡이

옥중서신 AD 60년대 초기, 옥중서
신은 바울이 로마에서의 제 1차 구금
시기에 자기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자기가 전한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
인들에게 특별한 사랑의 감정을 가
지고 쓴 글들로, 그들이 믿음으로 한
형태의 자매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
는 마음이 잘 나타난 글들이며(엨 1:16,
빌 1:3, 골 1:3) 그리고 빌레몬서는 죄
를 지은 종을 사랑으로 자유롭게 해
달라는 부탁의 편지입니다. 바울 사
도는 전도 여행 동안 자신과 동역자
들이 당한, 옥에 갇히고, 태장을 맞고,
난파당하고(고후 11:23-25) 라는 핍
박의 내용과 함께 옥중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형제들에게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 입니
다. 또한 빌레몬서는 골로새교회의 빌레
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골
로새서와 수신지가 같은 편지이며 에
베소교회는 골로새교회와 멀리 떨어
져 있지 않으므로 이 세 편지는 같은
묶음이고 빌립보서는 따로 쓰여져서

보내졌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
습니다.

에베소서

AD 61-62년 경으로 추정되며 에
베소의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서신으
로 교회의 교리(교회론)의 확립을 위
한 책으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나 아무 차별 없이 그 몸의 지체로 연
합되는 신비스런 비밀(엨 1:20-23)로
계시되며, 유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 모든 성도의 통일 즉 교회의 통일
성을 말합니다. 본서는 특별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건물로 지어짐, 그리
스도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골로새서

AD 61-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의 감옥에서(골 1:1, 23, 4:18) 골로새
교회에 생긴 혼합 종교에 영향을 받

은 이단적 사조에서 골로새 교우들이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주의 주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강조하
여 이 편지를 썼으며 에베소서의 실
질적인 교훈이고 그리고 빌레몬서와
관계가 직접적인 있습니다(골 4:10-
14, 몬 23-24절). 골로새교회는 바울
의 제자 에바브라가 목회하는 교회로
서 골로새는 영지주의를 비롯한 온갖
철학과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는 곳이
었습니다. 이에 골로새서는 예수님께
대한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1)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총만성(골
1:15-18, 히브리서를 참고할 것). 2)
원수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신 예수님
을 소개하며 바울 자신도 자신의 남은
생을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울 것을 고백합
니다(골 1:24). 3) 바울은 골로새 교인
들에게 믿음 위에 거하고 터 위에 굳
게 서도록(골 1:23) 권면하며 그리스

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열매를
맺도록(골 1:10) 격려합니다.

빌레몬서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의 빌레몬에게 도망
친 종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 주인 빌
레몬에게 보낸 윤리적 성격의 사신으
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대
해줄 것을 중재, 중보 하는 바울은 하
나님께 중보 드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여 줍니다(참고, 히
9:24, 요일 2:10).

빌립보서

AD 61-63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의 감옥에서(빌 1:7, 1:13, 4:22) 자기
를 도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기 위
하여 에바브라디도에게 편지를 보내
어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성도의 교
제를 통하여 고난 중에도 주안에서

기뻐할 것(빌 4:4, 주 안에서 항상 기
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
라)를 말씀합니다.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에서 목회를 하
고 있는 에바브라디도가 빌립보 교
인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찾아옵
니다. 빌립보교회 안에 유오디아파
와 순두게파가 대립하고 있다는 소리
를 전해듣고 서로 낮아져서 그리스도
의 충만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가
라고 권면하며 교인들에게는 그리스
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빌 4:4-7). 또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
히는 무리들 중에 할례당이라고 우쭐
대는 무리들에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대적 외적 조건을 자랑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신앙고백(빌 3:7-9)
으로 저들과 대응합니다. 또한 다가올
고난도 기쁨이며 특권을 고백합니
다(빌 1:29).

글=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썩난
지팡이 저자 이학진 장로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칼라
카피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Life

이스라엘 탐방

유대 광야 수도사들의 일상 생활

일반 사회와 동떨어진 채 스스로 고립되어 경건과 영성에 힘썼던 수도사들의 하루 생활은 어땠을까? 역사적인 문헌들을 통하여 조명해 본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먹지 않으면 배를 곯았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타들어갔다.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여 늘 수면이 부족한,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은 마치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 같았다.

5세기 시리아의 주교(Bishop)였던 마루타(Maruta)는 수도원 생활의 규칙을 73가지로 정리하였다. 그 중의 한 부분이다.

“수도사들의 하루는 세 때로 구분된다. 기도와 책을 읽는 때, 일하는 때, 그리고 식사하고 휴식하고 잠자는 때이다.”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여름철, 날이 더울 때 수도사들은 매우 이른 시간에 일을 시작했다.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 정오 예배 때까지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식사와 함께 휴식하였다. 그러나 날씨가 쌀쌀할 때에는 저녁 식사(Evening meal) 때까지 일했으며, 예배 후에 식사를 했다.”

수도원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 규칙은 본래 구전으로 가르쳐졌던 것이었는데 나중에 기록으로 남았다. 이런 규칙은 수도원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했다.

가파도기아의 바질(Basil the Great of Cappadocia) 역시 수도사들의 생활 규칙을 정하였다. 테오도시우스는 자신의 공동체에 바질의 규칙을 적용하기도 했다. 시릴은 자신의 책에서 사바스 역시 자신을 따르는 수도사들에게 ‘대 라우라의 규칙(The Regulations of the Great Laura)’을 강조했음을 자주 언급하였다.

수도원에서 매일의 생활은 기도 시간에 의해 정해졌다. 라우라와 코노비아 같은 유대 광야의 수도원들은 7일 생활 규칙을 정한 가파도기아의 생활 규칙을 취하였다. 수도사들의 매일의 기도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철야 기도(Nocturnal vigili)는 자정을 넘겨 닭이 울 때 시작되어 새벽



마르 사바 수도원의 내부



마르 사바 수도원에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위치한, 사바스가 처음 수도생활 했던 굴

전에 끝났다.

2) 아침 기도(Matins)는 해가 뜰 때 시작되었다.

3-5) 세 번의 낮 기도: 세 번째(Tertia), 여섯 번째(Sexta), 아홉 번째(Nona) 시간에 기도(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하였다.

6) 저녁 기도(Vespers)는 저녁 식사 후(또는 식사 전), 해지기 전에 기도하였다.

7) 밤 기도(Compline)는 해진 후 그리고 잠에 들기 전에 기도하였다.

광야의 수도사들은 이렇게 하루에 일곱 번 기도하는 규칙에 따라 생활하였다.

작은 굴에서 지내는 수도사들은 다양한 시편과 노래로 구성된 내용을 암송하였다. 반면 코노비아 수도사들은 수도원의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였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위임 수도사(Designated monk)는 교회 옆에 바줄(또는 쇠줄)로 매달아 놓은 시만드론(Symandron)이라 불리는 나무판을 두드리 기도 시간을 알렸다. 시만드론은 오늘날 그리스 정교회에 속한 수도원에서 볼 수 있다. 시내산의 성 캐더린 수도원(St. Catherine)에 있는 시만드론은 비록 후대의 것이지만, 비잔틴 시대의 시만드론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광야의 밤은 매우 고요하다. 시만드론을 두드리면 그 부드러운 소리는 광야의 조용한 밤을 타고 라우라 전체에 은은하게 퍼진다. 위임 수도사가

기도 시간을 알리기 위해 시만드론을 두드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코노비아에서 시만드론 소리는 먼 곳에서 온 상인들이 일찍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수도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수도사들은 식사를 기도의 연장으로 이해하였다. 데옥티스투스 수도원에서 유티미우스가 정한 규칙에 보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식당에서 공동체 식사 중에’ 대화를 금지한 규정이 있다. 이런 예는 조지 코지바의 전기에도 기록되었다.

“수도사들은 정오 기도를 마친 약 오후 1시에 식사하였고 식사 후에는 낮잠을 잤다.”

그러나 같은 기록에 보면, 때로 또 다른 식사가 오전 10시에 제공되기도 했다. 이것은 코노비움 밖에서 고된 일을 하는 수도사들에게 제공된 음식이었다. 이것이 일반적이었는지 아니면 특별한 예외 사항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모스쿠스(Moschus)는 시내 광야의 라이투(Raithou) 수도원에 대해, 그곳의 수도사들은 9번째 시간(오후 3시)에 식사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식사 시간은 각 수도원마다 달랐다. 이집트의 관습처럼 수도원에서 하루에 두 번 식사를 한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수도사의 하루는 오후 8시(The second hour of the night)에 끝났다. 안토니가 정리한 조지 코지바의 전기를 통해 알게 된 이야기이다. 어느 주

일, 조지 코지바는 한 형제와 밤 8시 또는 밤 9시까지 계속 대화하였다. 밤 8시가 벌써 지났는데 코노비움에서 밤을 보내지 않는 습관을 가진 그는 문을 두드리며, 문지기에게 자신의 작은 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문지기는 문을 그만 두드리라고 하면서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주무시고 먼동이 트면 떠나십시오”라고 말했다.

또한 수도원에서 첫번째 기도인 철야 기도가 자정 직후에 시작되었음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철야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약 4시간을 잘 수 있고, 철야 기도 후에는 약 2시간을 더 잘 수 있었다. 밤을 6시간으로 구분한 것과 잠 자는 것을 6시간으로 구분한 것은 채리톤이 파란 라우라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규칙이었다.

공동 회집(Mass/Eucharistia)은 주말에 가졌다. 데옥티스투스 수도원, 파란 라우라, 유티미우스 수도원에서는 482년까지 수도사들의 회집은 오직 주일에만 있었다. 그러나 제라시무스, 사바스, 코지바 수도원과 같은 일

부 수도원에서는 1주일에 두 번, 토요일과 주일에 공동 회집을 가졌다.

수도사들은 해시계를 사용하여 기도와 노동 시간을 확인하였다. 카스텔리온(Castellion)에서 발견된 해시계는 돌로 너비 38cm, 높이 30cm 크기로 만들어졌다. 해시계는 열 단위로 구분되었고 각 단위는 그리스어로 표시하였으며, 십자가 문양이 새겨졌다. 마티리우스 수도원(Monastery of Martyrius)에서도 두 개의 해시계가 발견되었다. 마티리우스 해시계는 낮을 12시간으로 구분했다. 두 개 가운데 한 개는 식당에서 발견되었다. 아마도 이것은 수도원의 책임자가 식당과 주방에서 수도원의 일정을 정하기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로 대부분을 보냈던 수도사들의 하루 생활은 정말 단순하였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비잔틴 시대의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나 1년에 하루를 정도는 자신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의 경건에 집중할 수는 있다. 경건은 속된 것으로부터 하나 남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테크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춤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겉술로 만든 발효홍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4층)

세리토스현대 CERRITOS HYUNDAI

EQUUS SIGNATURE 2013	SONATA GLS 2013	ELANTRA GLS 2013	ACCENT GLS M/T 2013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0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red;">\$499 Lease</p> <p style="font-size: 12px;">per month plus tax</p>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red;">\$109 Lease</p> <p style="font-size: 12px;">per month plus tax</p>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p>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red;">\$99 Lease</p> <p style="font-size: 12px;">per month plus tax</p>	<p>VIN# NDU423702</p> <p>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red;">\$89 Lease</p> <p style="font-size: 12px;">per month plus tax</p>
<p>한인담당 Alex Shin CERRITOSHYUNDAI.COM</p>		<p>■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p>	
<p>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7월 17일 까지입니다.</p>		<p>HYUNDAI Assurance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p>	
<p style="font-size: 36px;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Tel. 562.900.2399</p> <p style="text-align: center;">18818 Studebaker Rd Cerritos, CA 90703</p>			

강선영 칼럼

나의 가장 큰 감사와 행복

생각해 보면, 나는 어린시절부터 고난과 시련이 끝없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50년만의 최고 무더위에 가난한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난 날부터 독약을 먹고 하루 이상 죽어 있었던 6개월짜리 아기의 고난을 지나, 전쟁터같은 집에서 늘 피 흘리며 쓰러졌고, 어릴 때부터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고, 어른 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어린아이였던 내가 어른인 부모를 먼저 생각해야 했고, 먼저 이해해야 했고, 먼저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만이의 책임감은 지속적으로 부여되었고, 나는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야 했습니다.

너무 기운이 없어서 다리를 질질 끌며 걸어야 했고,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나의 무의식은 나를 점점 더 억압시켰고 고립시켰습니다. 꼬챙이처럼 말랐던 몸보다 영혼이 더 메마르고 있는 동안, 사람의 존귀함을 잃어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엔 더럽고 멍청하다고 놀림을 당했고, 중학교 시절엔

수업시간 마다 간헐적으로 잠깐씩 졸도를 했으며, 하마터면 가지 못할 뻔 했던 고등학교 시절엔 하루에도 수 백 번씩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멍한 상태로 선택했던 대학은 괴로움만 겪다가 다 마치지도 못한 채 도망을 쳐야 했고, 죽을 것만 같아 외로워서 너무 일찍 선택했던 결혼 생활도 불행으로 점철되었으며, 사망에서 적들의 공격을 당해야 했습니다.

깊이 절망했으며, 수없이 좌절했으며, 실패가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던 그리스도 예수처럼 나도 온 몸에서 피를 쏟았던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병든 나는 그 무엇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부모를 원망했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고통을 주는 잔인한 인간들이라고 믿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고 다 빠져나가 그만 죽어버리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자살은 끝내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내가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내 속에 살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본

능처럼 꿈틀거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죽음으로 향하던 나를 붙들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쓸려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일라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정말이지 단 한 번도 행복한 지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을 지나 수 십 년의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 같은 건 정말 단 한 순간도 행복해질 수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늘 행복해졌습니다. 이 행복감은 상황이 나 환경과는 관계없이 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감정으로 나의 내면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신명기 33:29)”라는 구절과 같이 나는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깊고 깊은 어둠의 골짜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듯이, 지금도 이 생각 속에서 고통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곳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언젠가 내가 그 골짜기를 벗어나듯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허덕이며 살았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것 하나 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고통과 고난의 세월까지도 모두 감사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얼굴에 고난의 흔적이 크게 없는 것도 감사하고, 우울증일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건강한 몸도 감사하고, 시련이 다가와도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감사하라”는 성경의 구절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것은 치유 이후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울증’이란 병명을 ‘심리암’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암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암에 걸려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생긴 암도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죄의 댓가로 생긴 것도 아니고 신앙이 약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서 생긴 것은 더욱 더 아닙니다.

상처가 수년간 쌓이고 쌓이면 마음의 암인 우울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상처가 하나 생기면 그것이 암이 되기 전에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상처가 생겨서 어린 아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대로 무의식에 자꾸 저장하다 보니 그토록 극심한 심리적 질병이 생겼던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일찍 알았다면 나의 십대와 이십대는 그토록 불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심리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행복’ 기쁨

을 맛보기 힘듭니다.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게 됩니다. 마음 속 깊이 행복한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치유된 이후에 나는 행복해졌고, 마음 속에는 감사함이 가득해졌습니다. 치유되기 전에는 꿈에도 느낄 수 없었던 긍정적인 감정들이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치유 이전의 나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진실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치유 이후에는 그 전의 불행했던 나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치유 이후에는 행복감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아직 치유 여정에 있는 모든 분들과 크고 작은 고통 속에서 절망감과 불행감을 안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체험적으로 나의 진실한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가장 큰 감사함은 치유 이후에 왔습니다. 치유 이후에 비로소 내가 행복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해 지길 바랍니다. 행복해지면 감사한 마음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이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용기 있게 치유의 여정을 마친 이후에 저절로 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행복과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을 거듭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강선영 목사

HEALTH

‘통통할 뿐’이란 방심이 아이의 성조숙증 불러

소아비만은 이른 사춘기의 원인이 되기도



아이의 입맛대로 먹고 싶은 음식만 먹게 내버려 둔다면 균형 잡힌 식사보단 초콜릿, 아이스크림, 라면, 햄버거 등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만 찾을 것이다.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는 속담과 반대로, 입에서 맛있는 음식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 A(가명, 9) 양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피자과 치킨을 꼽는다. 채소는 입에 대지도 않고 패스트푸드로 식사를 대신할 때도 잦다. 또 그냥 물은 잘 마시지 못해 탄산음료를 통해 수분을 보충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 이런 잘못된 식습관으로 A양은 키 127cm에 몸무게 52kg의 고도비만이다.

키보다 많이 나가는 몸무게도 문제이지만, 작년부터 A양의 가슴이 붓고 하얗게 올라오더니 험렁한 티셔츠를 입어도 가슴이 도드라져 보이게 되었다. 이처럼 2차 성징이 평균치보다 2년 정도 빨리 나타나는 것을 성조숙증이라고 한다. 성조숙증에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그 중 환경적 요인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식습관이다.

이에 성조숙증을 집중 연구·치료

하는 유아성호르몬의 정은아 원장은 “서구화된 식습관은 소아비만의 주된 원인”이라며 “체지방률이 높은 비만의 자녀일수록 성호르몬 분비가 빨라지고 성조숙증을 초래할 위험이 커진다”고 전했다.

이처럼 소아비만은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성조숙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춘기 징후가 빨리 나타나게 되면 성장판 역시 빨리 닫히게 되므로 원래 자랄 수 있는 최종 신장보다도 작은 키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유아성호르몬 정은아 원장은

소아비만과 성조숙증을 예방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소개했다. 정원장은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되 야식을 피해야 한다”며 “달걀, 명란젓, 날치 알, 새우, 오징어, 홍합 등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거나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아비만의 자녀가 이미 성조숙증 징후를 보인다면, 부모는 아이 앞에서 당황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부모의 감정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돼 아이의 스트레스 지수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방에서는 비만아동의 성조숙증

치료를 위해 체중감량과 사춘기 징후를 지연시킬 수 있는 한약 처방을 한다. 이와 함께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줄이게 하고 채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식단으로 아이의 식습관을 교정시킨다. 또한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 줄넘기, 스트레칭 등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 아이가 평생의 바른 생활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돕는다.

성조숙증이 나타난 초기에 빠른 진료가 이뤄진다면 한약처방과 생활습관 교정으로도 사춘기 징후를 늦출 수 있다. 김은혜 기자

design@christianherald.com <design@christianherald.com>;

THE REFORMED UNIVERSITY

미주개혁대학교 1990년에 고 박요한 박사가 설립한 미주개혁대학교는 철저한 신학 학문 바탕으로 영성훈련, 교회헌법, 예식, 목회실습 등 전통성과 전문성을 교육하고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윌리엄캐리대학 코리안 Ph.D 과정 >>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Korean Ph.D)

윌리엄캐리대학의 박사학위과정 (Ph.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을 미주개혁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공분야: 1. 선교 2. 기독교 교육 3. 글로벌 리더십

특징: 윌리엄캐리대학의 졸업장을 받는다
한국 지도교수에게 한국어로 공부하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세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멘토링과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다
윌리엄캐리대학의 도서관과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복수학위 수여 (Ph.D) >>

윌리엄캐리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에 미주개혁대학교의 D. Min, D. Miss, Ph.D in Theology(24-30학점)를 추가로 이수할 경우 두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미주개혁대학교는 다양한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및 편리한 통상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학사, 석사, 박사) >>

Undergraduate 대학부
Bachelo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Graduate 대학원
Maste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Master of Divinity

Graduate 박사원
Doctor of Ministry
Doctor of Philosophy in Theology

세부전공:
신학 Theology, 기독교 교육학 Christian Education, 유아교육학 Early Childhood Education, 목회상담학 Pastoral Counseling, 심리학 Psychology, 선교학 Missiology, 세계문화학 Intercultural Studies, 문예창작학 Classical Literature

2013 여름학기 속성클래스 Intensive Program으로 등록 >>

1주일 집중 교육함으로 한 학기를 수료
일시: 2013년 7월 22일(월) - 26일(금)
장소: 미주개혁대학교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수업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SEVIS I-20 발행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Office **213-736-6500** | Fax 213-736-6504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전기 . 철공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용접, 게이트

경남 철공소

모터 수리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투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밀크커피/한국차(유자차, 검은콩 울무차, 대추 생강차) 핫초코/카푸치노/블랙커피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와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빙베어 농축 흑염소

-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허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복용2년]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스마트 월드

www.GoSmartworld.com 건강용품 전문점!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특대인기상품 \$3,900*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현재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살리온! 자동차 핸들 커버 \$30 강력안 음이온 • 원적외선 방출

졸음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승기력 관력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로메오 갤럭시 833 S.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one stop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유동근 목사 요한복음 강해>

오병이어: 기독교의 중심은 '먹는 데' 있다

유동근 목사
온누리선교회



요한복음 6장은 70절이 넘는 긴 장이다. 그러나 이 6장은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않으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흡수할 수 없기에, 한번에 읽고 공부할 것을 권한다.

6장에는 두 가지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나온다. 첫째는 오병이어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이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 요지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제자들도 수군거렸다. 나 또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염려가 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받으려는 마음만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들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6장에서 주님은 갈릴리로 다시 오셨고, 디베라 바다 건너편 산에 올라가셨다. 당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기적을 행했다는 장본인인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다(2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4절).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를 명절에 맞춘 것을 요한복음 6-7장에서 볼 수 있다.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실제이시고, 초막절도 실제이시기 때문이다. 유월절 양은 다른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그 절기에 양의 고기를 구워먹어야 하는 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는 그분의 살을 먹어야 하는 문제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그들을 먹일 준비를 하셨다(5-6절).

여기서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보신 적이 있으시다(창22:1). 이 구절들은 야고보서 1장 13절과 대치되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위의 시험은 그야말로 시험(test)이고 야고보서의 시험은 유혹(temptation)이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 왜 시험하시나? 그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사람을 교육시키는 가장 뛰어난 방법은 먼저 묻고 해 보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된다. 즉 인상적인 배움이 적다는 말이다. 사람의 한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빌립의 대답이 전부다. 주 예수님은 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무언가를 하실 것을 아셨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에게 먼저 물으셨던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하실 수 있음은 얼마나 다른가?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는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 제자들마다 성격이 다르다. 안드레는 주로 행동파다운 사람이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에게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것을 가져오게 하시고 무리를 앉히라고 하셨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해 8천-1만명이 그것을 보고 다 앉았다는 것도 기적적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 계속 나눠줘도 계속 생기는 것이었다.

이것은 신약의 원칙을 말하고 있다. 주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없이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헌신과 조금 드리는 것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원칙을 보여주

시는 것이라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드러보라.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끼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인간은 육신의 양식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 사람은 기묘한 존재로, 하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존재이다(마 4:4). 우리가 영의 양식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른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 6장의 디베라 바다 건너편의 군중은 배고픈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 기독교는 뭔가 지식을 많이 얻고 또 무슨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라면 먹는 종교이다. 속에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사람마다 죄의 문제가 있고 정죄가 있는 것은 내적인 문제요 영적인 문제다. 이런 문제는 물질적인 음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 정신적인 노력으로도 안 된다. 영의 음료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주님은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셨다. 사람마다 안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채워진다. 영의 양식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의 공급이지만, 이는 매우 실제적인 공급이요 충족함이다.

두 가지 기적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은 '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다. 또 '하나님의 일?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다'라고 하셨다. 주님은 먹는 문제를 가르치시기 위해, 표적들을 사용하셨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은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주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영적 세계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아 자란 민족이다. 그런 자들의 관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다.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종교적인 것이고 무언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3장에서 니고데모의 질문도 본질상 비슷했다. 6장은 사람의 관념을 완전히 깨는 장이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고 하셨다. 실제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역량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의 문제가 거기서 발생한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 데 앞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일이다.

이후 예수님은 참 믿음에 대해 소개하신다. 1-5장에서든 믿음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6장에서는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신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배부르며 음료를 먹고 목마름이 해결되듯,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 배부름을 얻는 것이다. 이 영적

진리를 설명하시려 먼저 육신적으로 배고픈 그들을 먹이는 시범을 보이셨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다. 곧 음식을 먹듯 우리 속에 받아들여 영양분이 되게 하는 것이다. 혈액 속 모든 건강의 요소가 되고 힘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속의 성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회는 일차적으로 먹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하나의 잔치로 비유하셨다. 살된 송아지를 잡아놓고 먹으러 오라는 것이다. 먹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주관적인 것은 없다. 그것은 결코 객관적일 수 없다. 결국 믿음이란 예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다. 사람들이 먹을 떡이 있게 됐다. 예수님은 먹을 음식과 마실 음료로 오셨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쁨을 갖는 것이 정상인가? '나는 만족해. 나는 충분히 먹어 부족함이 없어.' 이러한 만족함과 기쁨과 상쾌함이 있어야 한다. '내 피는 참된 음료이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했다. 마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쾌하게 한다. 먹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주고 힘을 준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물론 알아야 하지만 그 공부하는 것이 모두가 아니다. 아는 것도 먹기 위함이다. 식욕은 건강한 사람에게 있다. 몸이 너무 약해지면 식욕이 없어진다. 건강한 사람만이 음식 맛을 알고 밥을 먹을 수 있다.

동정

조범철 목사, 본국 새에덴교회 영어예배 부임

한인 15세 목회자로 문답을 위기에 놓였던 미국 교회에 부임해, 다민족 교회로 빠르게 성장시켰던 시애틀 열린문교회 조범철 목사가 오는 7월 7일부터 본국 새에덴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다.

새에덴교회는 소강석 목사가 1988년 가락동 지하상가에서 개척해, 현재 1만여명 성전, 3만여명이 출석하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대형교회다. 조 목사는 새에덴교회에서 영어예배와 새신자예배 전임목사로 섬기



조범철 목사

시애틀에서 다민족 목회 경험이 있는 15세 조범철 목사가 적임자로 판단돼 이뤄졌다.

조범철 목사는 "정확히 30년 동안 미국에서 교육받고 목회하다가, 이제

게 됐다. 조 목사의 새에덴교회 부임은 한국 거주 외국인의 급증으로 인한 영어예배와 다민족 목회의 필요성 증가와 더불어, 시애틀에서 다민족 목회 경험이 있는 15세 조범철 목사가 적임자로 판단돼 이뤄졌다.

는 조국, 한국에서 하나님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며 "시애틀 지역 선배 목사님들의 율공은 신앙과 깊은 사랑을 기억하며, 한국에서도 다민족 목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미국에서의 목회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역시 다민족 목회의 경험을 꼽았다. 열린문교회의 다민족 사역은 미국 교계에도 소개돼, 조 목사는 매년 미국 목회자 컨퍼런스 강사로 초청 받기도 했다.

"한국인 목사로서 백인, 흑인, 한인, 사모아인, 네팔인, 멕시코인 등 다민족 목회를 통해 폭넓은 시각을 배울

수 있었고, 많은 일들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또 미국의 도움을 받은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조범철 목사가 다민족 목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코이노니아 하우스' 때문이다. 30년 동안 10여명만으로 명맥을 유지해오던 미국 교회는 새로 부임한 조 목사에게 교회 옆, 작은 집을 사택으로 사용하도록 배려했고, 조 목사는 회복 사역을 위해 교회에서 제공한 사택을 노숙자, 범죄자, 감옥 출소자, 중독자들에게 내어주고, 가족은 월세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이렇게 1채로 시작한 "코이노니아 하우스"는 조 목사가 사임할 무렵, 4채로 늘어나면서 재활 및 회복사역의 활성화를 이루기도 했다. 조 목사는 이 사역을 통해 감옥에서 출소한 흑인 제스로 조(Cho)를 임명했고, 제스로는 오는 10월 신대원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목회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조 목사는 "시애틀에서의 목회와 앞으로 진행될 한국에서의 목회, 앞으로는 '하나님의 심장과 시각을 가지고 한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조인시아메리카 선정]
"4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집전화 절약의 기회

iTalkBB SUMMER FESTIVAL

비히트 상품

아이토크비비 미국 무제한 플랜

\$9.99/월

- ▶ 미국 전지역 무제한 통화
- ▶ 한국 유선전화로 매월 60분 무료 통화

패밀리 알뜰 플랜

미국 최저가 \$4.99/월

- ▶ 수신 무제한
- ▶ 미국 로컬, 장거리 2센트
- ▶ 기존 전화번호 유지 가능

글로벌 플랜

\$24.99/월

-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 발신자번호 표시, 착신전환 기능 제공

글로벌 플러스 플랜

\$34.99/월

-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행사기간 2013년 7월 15일 까지

지금 가입하시면!

우리집 전화 요금 7,8,9월 까지 무료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LA 직영점 (코리타운 갤러리아 304호)

www.Korea.iTalkBB.com

213.559.7557 | **1.800.872.2902**

30일 품질의 자신!

환불 보장!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

지금 가입하고 친구추천 하면 1개월 무료

고객지원 문의

1.800.875.8318

365일 오전 6시~오후 10시(30분PST)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SUPER STORE

독립기념일맞이 BIG EVENT



좋은이자율! 최상의 서비스!
현대를 만나는 가장 좋은 곳!

갖고 싶은 현대차를 가장 좋은 이자율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욱 만족을 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2013 ELANTRA GLS

\$92 +TAX

36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16,890 (STK #398513)

PH HYUNDAI D/C \$973 MILITARY REBATE \$500
COMP. COUPON \$500 COLLEGE REBATE \$400



2013 SONATA GLS

\$123 +TAX

36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22,375 (STK #713499)

PH HYUNDAI D/C \$1,325 LEASE CASH \$1,000
ROYALTY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EQUUS ULTIMATE

\$599 +TAX

24 Month lease / 12k mile / T.D.O 6,999

MSRP \$66,650 (STK # 051811) Demo

LEASE CASH \$1,000 COMP. COUPON \$1,000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다양한 차량과 색상 보유!
자체 파이낸싱과 특별할인 프로그램!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HYUNDAI 100,000 REASONS EVENT

HYUNDAI 100,000 MOTIVOS



Sales 스티브 장 626.513.4005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